



박민석 쌤

**이 파일에는
확인 문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해를 돕는 설명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요약 정리를
목표로 만든 파일입니다.**



차례

I. 음운

음운	P. 2
자음	P. 3
모음	P. 4
반모음	P. 5

2. 음운의 변동

교체	P. 6
첨가	P. 9
축약	P. 11
탈락	P. 12
음운의 변동 기출 예시 종합 분석	P. 14

3.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의 정의, 종류	P. 15
-------------	-------

4. 품사

품사의 분류	P. 16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P. 17
용언(동사, 형용사, 규칙/불규칙 활용)	P. 24
전성 어미 vs 접미사	P. 30
수식언(관형사, 부사)	P. 32
관계언(조사 -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P. 34
독립언(감탄사)	P. 39

5. 단어의 형성

단일어와 복합어	P. 40
어근 vs 어간	P. 40
파생어(판단 기준, 대표적 접사, 주의해야 할 예시)	P. 41
합성어(대등, 중속, 융합 합성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P. 42
유의 관계(유의어)	P. 45
반의 관계(반의어)	P. 47
상하 관계(상의어, 하의어)	P. 50
다의 관계(다의어), 동음이의 관계(동음이의어)	P. 52

6. 단어의 의미 관계

7. 문장 성분	P. 54
문장 성분의 체계(주의해야 하는 성분)	P. 54
관형어 vs 관형사, 부사어 vs 부사	P. 55
서술어의 자릿수(필수 성분)	P. 56
필수적 부사어 vs 일반적 부사어	P. 57

8. 문장의 짜임

홀문장 vs 겹문장	P. 58
안은문장 - 안긴문장(각 절의 분석 순서와 방법)	P. 60
이어진 문장	P. 63

9. 문법 요소

높임 표현	P. 66
사동 표현, 피동 표현	P. 71
시간 표현	P. 79
부정 표현	P. 82

10. 어문 규정

외래어 표기법	P. 84
로마자 표기법	P. 89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p.114)	P. 95

11. 중세 국어 문법

중세 국어의 음운	P. 129
중세 국어의 표기 양상	P. 133
중세 국어의 격 조사	P. 135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	P. 141
중세 국어의 의문문	P. 142
중세 국어의 높임법	P. 145
중세 국어 음운의 변화	P. 150
중세 국어의 시제	P. 152
그 외 기타	P. 154



1. 음운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분절 음운(음소)와 비분절 음운(운소)로 나뉨.

분절 음운 : 자음, 모음

비분절 음운 : 소리의 길이

최소 대립쌍 :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최소 대립'이라 하고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한다.

예) 방, 뺑 - 'ㅂ, ㅃ'이 음운임을 알 수 있다.

불, 벌 - 'ㄸ, ㅌ'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발, 박 - 'ㄹ, ㄱ'이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야, 와 - 반모음 'ㅟ[j]'와 'ㅜ[w]'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울, 꿀 [x] - 초성의 'ㅇ'은 소리를 나타내지 않는다. 서로 음운 개수가 맞아야 최소 대립쌍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바위, 밥 [x] - 음운 개수는 맞으나 모음인 '위'와 자음인 'ㅂ'의 대립은 최소 대립쌍을 이룰 수 없다. 즉 각각이 음운임을 보여줄 수도 없다.

아, 야 [x] - 음운 개수가 맞지 않는다. 'ㅏ'는 1개, 'ㅑ'는 반모음 'ㅟ[j]'와 단모음 'ㅑ'의 결합으로 음운 개수가 2개이다. 반모음에 대해서는 이 후에 제시된다.



- 자음

- ① 장애음
- ② 음절을 이룰 수 없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폐쇄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모음

- ① 비장애음
- ② 음절을 이룰 수 있음. 1모음 = 1음절

- 단모음 :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 위치가 바뀌지 않음.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ㅔ	ㅝ	ㅓ	ㅛ
저모음	ㅐ		ㅑ	

- 이중 모음

- ①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 위치가 바뀜.
- ②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③ 1음절이나 음운의 개수는 2개.



- 반모음

- ① 비장애음(모음 성질)
- ② 음절을 이룰 수 없음(자음 성질).

반모음의 종류

ㅟ[j] : ㅈ, ㅊ, ㅍ, ㅊ 등의 앞에서 분석되는 반모음 / ㄱ 에서 뒤에 분석되는 반모음

ㅠ / ㅡ[w] : ㄱ, ㅋ, ㆁ, ㄷ 등의 앞에서 분석되는 반모음



2. 음운의 변동

-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A → B], 음운 개수의 변화는 없음.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음.

실현 환경 : 한 음절 / 자음으로 시작하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의 결합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연음되어 ‘교체’가 일어나지 않음.]

예) 숲으로[수프로] vs 숲 위[수뷔] / 밖에서[바깸서] vs 밖여닫이[방녀다지] / 앞앞이[아바피]

[2] 비음화 : ㄱ, ㄷ, ㅂ이 ㅁ, ㄴ 앞에서 각각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 ‘ㄹ’아닌 자음 뒤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

[일반적 비음화는 자음 동화에 해당,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인 게 중요]

예) 국물[궁물], 길는[긴는], 입문반[임문반] / 종로[종노], 백로[백노>뱅노], 압력[압녁>암녁]

[3] 유음화 : ‘ㄴ’ + ‘ㄹ’ 혹은 ‘ㄹ’ + ‘ㄴ’의 구조에서 ‘ㄹ + ㄹ’로 발음되는 현상(결과가 중요), 역시 조음 방법이 같아짐.

예) 물난리[물랄리] // 의견란[의견난], 공권력[공뀐녁] 등 -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음[2음절 한자어에 1음절로 된 한자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말을 만드는 경우]



[4] 구개음화 :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와 만나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자음과 모음이 만난다는 점이 중요, 조음 위치가 같아지기 위한 현상인 게 중요]

[결과적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 바뀜]

예) 해돋이[해도디>해도지], 같이[가티>가치], 발이랑[이랑 : 조사][바치랑], 발이랑[이랑 : 실질 형태소][반니랑]

[5] 된소리되기

① ㄱ, ㄷ, ㅂ 뒤에 위치하는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예) 학교[학꾜], 견대[견뎌], 밥그릇[밥끄릇]

② 용언 어간 끝소리 ㄴ, ㄹ 뒤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어간, 어미의 경계가 중요]

예) 안다[안뎌][안기대[안기다]], 숨다[숨뎌][숨기대[숨기다]]

③ 관형사형 전성어미 ‘ㄹ’ 뒤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ㄹ’을 포함하는 어미에도 적용]

예) 먹을 것[먹을꺄], 그럴수록[그럴쑤록], 잘 먹을게[잘먹을꺄]

④ 한자어 ‘ㄹ’ 뒤 ㄷ, ㅂ,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ㄱ, ㅂ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

예) 발전[발뎌], 갈등[갈뎌], 결과[결과]

[6] ‘ㅣ’모음 역행 동화

대부분 비표준발음임.

‘ㅣ’가 가지는 ‘전설 모음’으로서의 성질에 동화되어 나타나는 ‘역행 동화’인 것이 특징적

냄비, -동댕이치다, -내기, -쟁이 등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들도 있음.

예) 아기 → 애기, 고기 → 괴기, 아비 → 애비, 어미 → 예미



[7] 반모음화

음절이 축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

이중 모음이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된다는 것.

결국 이중 모음은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지지만 1음절을 형성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예) 숨기어 → 숨겨, 들키었다 → 들켰다



- 첨가(=사잇소리 현상)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 → A], 음운 개수가 하나 늘어나게 됨.

사이시옷과 관련성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1. 사이시옷과 관련 없는 첨가 현상(사잇소리 현상)

(1) [초성의] 'ㄴ'첨가(예외 존재)

- 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 ②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ㅑ[j]'로 시작 / ③ 뒷말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 뒷말 초성에 'ㄴ'이 첨가됨.
- 첨가된 'ㄴ'으로 인해 앞말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첨가된 'ㄴ'이 앞말의 'ㄹ' 때문에 유음화를 겪기도 함.

예) 색연필[색년필>생년필], 금행열차[그팡널차], 물약[물낙>물락]

(2) 반모음 첨가

-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모음 'ㅑ[j]'를 첨가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모음'을 만드는 현상

예) 되어[되여], 피어[피여], 이오[이요], 아니오[아니요]

2. 사이시옷과 관련된 첨가(사잇소리 현상)

㉠ 사이시옷 표기를 고려하는 사잇소리 현상

- 뒷말이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예) 쇠조각[쇠조각] → 쇧조각 / 나루배[나루배] → 나룻배 / 내가[내가] → 냇가

- 뒷말 ㄴ, ㄹ 앞에서 이유 없이 '종성'에 'ㄴ'이 첨가되는 경우

예) 코날[코날] → 콧날 / 이몸[인몸] → 잇몸 / 아래마을[아랜마을] → 아랫마을

- 뒷말 모음 앞에서 이유 없이 'ㄴㄴ'이 첨가되는 경우

예) 나무잎[나무닙] → 나뉯잎 / 깨잎[깡닙] → 깻잎 / 예사일[예산닐] → 예삿일



㉠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 - 맞춤법과 관련

㉠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날 것.

인사말[○], 인삿말[X]

머리말[○], 머릿말[X]

등교길[X], 등굣길[○]

위층[○], 윗층[X]

아래쪽[○], 아랫쪽[X]

㉡ 명사와 명사가 만나 합성 명사를 이룰 때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내가[내까] → 냇가

물가[물까] → 물가

손가락[손까락] → 손가락

장마비[장마뻬] → 장맛비

㉢ ‘고유어와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한자어+한자어’의 경우와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

예) 피자집[피자집] → 피자집 X - 외래어인 ‘피자’가 포함

내과[내과] → 냇과 X - 한자어 ‘내’와 ‘과’의 결합

전세집[전세집] → 전셋집 이[‘집’은 고유어]

전세방[전세방] → 전셋방 X[‘방’은 한자어]

[cf. 내가[내까] → 냇가 ○]

※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지만 사이시옷의 표기가 가능한 경우(예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뎛가, 갯수’는 틀린 표기이다.]



-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A + 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됨.

[1] 모음 축약

앞서 말한 반모음화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은 모음 축약으로 다룰 수밖에 없음.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예) 아이 → 애, 되어 → 돼, 누이+어 → 뉘어 등

[2]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ㅋ, ㅌ, ㅍ, ㅊ가 되는 현상

예) 좋고[조코], 굳히다[구티다>구치다], 밟히다[발피다], 옳지[올치], 끊기다[끈키다] 등
꽃히다[꼬치다], 글히다[글키다], 흠하고[흐카고]



- 탈락

두 음운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AB → A or B], 음운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됨.

(1)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에서 하나가 줄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일반적 경우 : 직관에 따르면 됨.

예) 삶[삼], 녀[늬], 외곶[외골], 값[갑] 등

예외가 있는 경우

ㄹ - 일반적 경우 : ㄱ이 남음

- 예외적 경우 :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남음.

예) 흘[흑], 흘과[흑과], 밍다[박따]

밖고[발꼬], 굵기[글끼]

ㄹ - 일반적 경우 : ㄹ이 남음.

- 예외적 경우 : ㅂ이 남음.

예) 뉘다[널따], 짹다[짚따], 뉘다[뉘따]

뉘다[뉘따], 밍고[밍꼬], 뉘죽하다[뉘쭈카다], 뉘동글다[뉘똥글다], 뉘적하다[뉘찌카다]

중요한 겹받침

ㄹ - 탈락 후 교체가 필연적으로 일어남. 음운 변동 횟수를 셀 때 매우 중요

예) 읊는[읊는>읍는>음는]



[2] 모음 탈락

: ‘ㅡ’탈락, ‘ㅏ/ㅑ’탈락

예) 뜨어 → 떠, 따르+아라 → 따라라, 치르+어서 → 치러서 / 건너+어서 → 건너서, 자+아라 → 자라 등

[3] 자음 탈락

: ‘ㄹ’탈락, ‘ㅎ’탈락

예) 놀+는 → 노는, 놀+비시다 → 놉시다, 살+(으)오 → 사오 [표기에 ‘ㄹ’탈락을 반영]

솔+나무 → 소나무, 불+삽 → 부삽, 말+소 → 마소 등 단어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했음[현대 국어 X]

까망+으니 → 까망니[까마니], 앓은[아는], 놓아[노아] [표기에 ‘ㅎ’탈락을 반영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 vs ㅎ탈락

‘ㅎ’탈락의 조건 : ‘울림소리 + ㅎ + 모음’ (‘ㅎ’이 초성으로 자리를 옮기며 탈락)

꿈어[끼너] : ㅎ탈락

꿈는[끈는] : 자음군 단순화



음운의 변동 기출 예시 종합 분석

맑네 - 맑네>막네(자음군 단순화)>망네(비음화) - 최종 발음 [망네]

낫일 - 낫일>낫일(음절의 끝소리 규칙)>난닐(‘ㄴ’첨가)>난닐(비음화) - 최종 발음 [난닐]

꽃말 - 꽃말>꼇말(음절의 끝소리 규칙)>곤말(비음화) - 최종 발음 [곤말]

굵고 - 굵고>굵꼬(된소리되기)>글꼬(자음군 단순화) - 최종 발음 [글꼬]

저녁연기 - 저녁연기>저녁년기(‘ㄴ’첨가)>저녕년기(비음화) - 최종 발음 [저녕년기]

부엌문 - 부엌문>부엌문(음절의 끝소리 규칙)>부영문(비음화) - 최종 발음 [부영문]

엮지 - 엮지>언지(자음군 단순화)>언찌(된소리되기) / 엮지>엮지(음절의 끝소리 규칙)>엮찌(된소리되기)>언찌(자음군 단순화) - 최종 발음 [언찌]

넓네 - 넓네>널네(자음군 단순화)>널레(유음화) - 최종 발음 [널레]

흑일 - 흑일>흑일(자음군 단순화)>흑닐(‘ㄴ’첨가)>흥닐(비음화) - 최종 발음 [흥닐]

발아구 - 발아구>발냐구(‘ㄴ’첨가)>발라구(유음화) - 최종 발음 [발라구]

도맷값 - 도매값>도매값(자음군 단순화)>도매값(사이시옷 현상) - 도맷값(사이시옷 표기) - 최종 발음 [도매값(원칙)/도맷값(허용)]

존댓말 - 존대말>존댄말(사이시옷 현상) - 존댓말(사이시옷 표기) - 최종 발음 [존댄말]

잠그+아 - 잠그아>잠가(‘ㄹ’탈락) - 최종 발음 [잠가]

키우+어라 - 키우어라>키워라(반모음화) - 최종 발음 [키워라]

활+살 - 화살(‘ㄹ’탈락, 표기에도 반영) - 최종 발음 [화살]

흑하고 - 흑하고>흑하고(자음군 단순화)>흐카고(거센소리되기) - 최종 발음 [흐카고]

굵히다 - 굵히다>글키다(거센소리되기) - 최종 발음 [글키다]

꽃힌 - 꽃힌>꼬친(거센소리되기) - 최종 발음 [꼬친]

놓아 - 놓아>노하(연음)>노아(‘ㅎ’탈락) - 최종 발음 [노아]



3. 형태소의 종류

1) 형태소의 정의 :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

(‘의미’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뿐 아니라 문법적 기능,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

하늘 - 1개

산토끼 - 2개

간다 - 3개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 유무(띄어쓰기 가능 여부) :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적 의미 유무 :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3) ‘실전용’ 형태소의 종류

실질, 자립 형태소 - 조사 제외 품사를 갖는 단어

형식, 의존 형태소 - 어미, 접사, 조사

실질, 의존 형태소 -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위주로 문제 풀어가는 게 중요

예) 나는 수능 시험을 잘 볼 것이다.

나, 수능, 시험, 잘, 것 : 실질, 자립 형태소

는, 을, -르, 이다 : 형식, 의존 형태소

보- : 실질, 의존 형태소(용언의 어간)



4. 품사

- 형태에 따라 : 가변어, 불변어(활용을 하는지 아닌지)
-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문장 내 기능)
-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각 단어의 의미)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관계언	나머지 조사
		서술격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 체언

체언은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단어들을 말한다.

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속한다.

명사

① 자립 명사 vs 의존 명사

자립 명사는 '관형어' 없이 혼자 쓰일 수 있지만, 의존 명사는 '관형어' 없이 쓰일 수 없다.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가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도 앞말과 띄어 쓰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이다.

의존 명사 예시(사전에 각각을 검색, 예문 읽어 보기)

1. 보편성 의존명사 : 이, 분, 것, 바, 데
2. 주어성 의존명사 : 지, 수, 리, 나위
3. 부사성 의존명사 : 줄, 채, 김, 대로, 만큼
4. 서술성 의존명사 : 따름, 뿐, 터, 때문
5. 단위성 의존명사 : 명, 개, 가지, 마리, 켄레...

자립 명사와 단위성 의존 명사의 관계

자립 명사가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함. 순간의 파악이 중요

예) 식물의 **뿌리**에는 영양소가 많다. - 자립 명사

산삼 두 **뿌리**를 직접 눈으로 봤다. - [단위성] 의존 명사

그릇을 깨끗이 씻어라. - 자립 명사

역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최고지. - [단위성] 의존 명사



② 유정 명사 vs 무정 명사

- 유정 명사(有情名詞) :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명사 - '사람, 동물'이 유정 명사에 해당
- 무정 명사(無情名詞) : 감정을 가질 수 없는 명사 - '식물, 무생물'이 무정 명사에 해당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단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음

인칭 대명사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2인칭		너, 자네, 당신, 그대, 너희, 여러분
	3인칭	일반적	그, 이이, 그이, 저이, 이분, 그분, 저분
		재귀칭	저, 자기, 당신 등
지시 대명사	사물 지시	이것, 그것, 저것	
	장소 지시	여기, 거기, 저기	
미지칭 대명사	3인칭	누구 등	
부정칭 대명사	지시	무엇, 어디	
부정칭 대명사	3인칭	아무 등	



재귀칭 : 앞에 나온 3인칭에 해당하는 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

저, 자기 / 당신(높임 표현) 등이 쓰임.

-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 재귀칭 아님.
- 너는 왜 **자기**밖에 모르냐? - 재귀칭 아님.
- 옆집 사는 철수는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가 다 치운다고 하더라. - 재귀칭 맞음.
- 민석이는 **저**밖에 몰라. 아주 그냥. - 재귀칭 맞음.
-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 재귀칭 아님.
-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자. - 재귀칭 아님.
- 어머니는 **당신**께서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 - 재귀칭 맞음.
- 이봐, 거기! **당신**, 누구야? - 재귀칭 아님.
- 외국인 방청객들은 서로 **저희** 나라 말로 대화를 하였다. - 재귀칭 맞음.
-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 재귀칭 아님.



미지칭 vs 부정칭

미지칭 : 몰라서 미처 지칭하지 못한 것.

부정칭 : 상관 없어서 굳이 정해서 지칭하지 않은 것.

누구세요? - 미지칭

거기 누구야? - 미지칭

누구 나랑 화장실 같이 가지 않을래? - 부정칭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 부정칭

아무나 나와서 도와줘. - 부정칭

A : 오늘 누구 만나? - 미지칭

B : 아빠랑 만나기로 했어.

A : 오늘 누구 만나? - 부정칭

B : 응 데이트가 있거든!

언제부터 나를 기다린 거야? - 미지칭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갈게! - 부정칭



우리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자. - 청자 포함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 청자 미포함

저희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 '우리'의 낮춤말

아들 내외가 또 사정을 하러 집에 찾아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재귀칭('지네'와 같은 의미)

지시 대명사 vs 지시 관형사

이처럼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 - 지시 대명사

나는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 지시 대명사 혹은 인칭 대명사

이 일처럼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 - 지시 관형사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 지시 관형사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수량 - 양수사

예) 하나, 둘, 셋, 일, 이, 삼 등

순서 - 서수사

예) 첫째, 둘째, 셋째 등

수사 vs 수 관형사 - 수식 여부에 주목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 수사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 수 관형사

그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수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수 관형사



수사 vs 명사 - 무언가 의미가 추가된 느낌에 주목

하나

나는 사과를 **하나** 먹었다. - 수사

우리는 **하나**이다. - 명사

하나도 재밌지 않다. - 명사

그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부품 같은 존재이다. - 명사

첫째[관형사로 쓰이기도 함.

첫째,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 수사[서수사]

시리즈물의 **첫째** 작품이다. - 관형사

신발은 **첫째** 발이 편안해야 한다. - 명사

자식 중 **첫째**는 회사원이고 **둘째**는 학원 강사이다. - 명사[자식을 의미]



용언

동사 :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음.

형용사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음.

용언의 활용 -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 것을 ‘활용’이라고 함.

어간과 어미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어간 뒤에는 어미가 (높은 확률로) 있을 것이다. 어미 앞에는 어간이 있을 것이다.



어미의 종류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어미는 나타내는 위치에 따라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가] 가- + -시- + -었- + -다 [어간,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나] 가- + -겠- + -지만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다] 바쁘- + -시- + -ㄴ 선생님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 어말 어미의 분류

어말어미	종결어미	평서형 종결어미[-다, -네, -오, -습니다, -습니다]
		의문형 종결어미[-느냐, -는가, -오, -소, -(으)니까, -냐]
		감탄형 종결어미[-구나, -는가, -오, -냐]
		명령형 종결어미[-아라/-어라, -게, -(으)오, -(으)십시오]
		청유형 종결어미[-자, -세, -(으)십시오]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나열: -고, (으)며/ 대조: -(으)나, -지만, -다만, 선택:-거나]
		종속적 연결어미[조건, 의도, 양보, 이유 등 다양함, 일반적으로 부사형 전성 어미로 생각되는 것들]
		보조적 연결어미[-아/어, -게, -지, -고]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으)며, -기]
		관형사형 전성어미[-(으)ㄴ, -는, -(으)ㄹ, -던]
부사형 전성어미[-게, -도록 등]		



-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 ㉠ 의미가 다르다. -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낸다.
- ㉡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ㄴ'과의 결합 가능 여부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과의 결합 가능 여부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형용사는 '-ㄴ/은'이 결합한다.
- ㉣ 의도, 목적의 어미 '-려, -러'와의 결합 가능 여부
동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없다.
- ㉤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 가능 여부
동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없다.
- ㉥ 진행형 '-고 있다'의 가능 여부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 ㉦ 의문형 어미
동사는 '-느냐'를 사용하지만 형용사는 '-냐'를 사용한다.

구별이 어려운 경우 예시

모자라다 - 동사 / 쪼들리다 - 동사 / 젊다 - 형용사 / 늙다 - 동사 /
 잘생기다 - 동사 / 닳다 - 동사 / 비다 - 동사 / 걸리다 - 동사 / 붓비다 - 동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앞의 용언인가, 뒤의 용언인가', 혹은 '둘 다인가'

'앞의 용언만을 말하려고 한다' → 그것이 본용언, 나머지는 보조 용언

'둘 다 말하려고 한다' → 둘 다 본용언

본용언 vs 보조 용언 구별하기 연습

→ '-서'를 넣어도 문장이 성립하고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뒤에 이어지는 것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것이다. (100%의 방법은 아님)

[적용해보기]

예) 과자를 씹어 **먹었다**. → 과자를 씹어서 먹었다(가능) → '먹었다'는 본용언

실수로 유리창을 깨 **먹었다**. → 실수로 유리창을 깨서 먹었다(불가능) → '먹었다'는 보조 용언

책을 다 읽어 **간다**. → 책을 다 읽어서 간다(불가능) → '간다'는 보조 용언

아들이 아버지를 더 닮아 **가는** 것 같다. → 아들이 아버지를 더 닮아서 가는 것 같다(불가능) → '가는'은 보조 용언

그 책을 읽어 **보았니?** → 그 책을 읽어서 보았니?(불가능) → '보았니'는 보조 용언

우선 말을 들어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 우선 말을 들어서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불가능) → '보고'는 보조 용언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 → 날씨가 더워서 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불가능) → '가지고'는 보조 용언

그 물건을 나눠 **가지는** 기쁨이 크다. → 그 물건을 나눠서 가지는 기쁨이 크다(가능) → '가지는'은 본용언

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 일해 **왔다**. → 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 일해서 왔다(불가능) → '왔다'는 보조 용언

날이 밝아 **온다**. → 날이 밝아서 온다(불가능) → '온다'는 보조 용언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는 규칙 활용에 해당함]

예) 따르+아 → 따라[‘ㄹ’탈락, 어간이 바뀌었지만 규칙 활용]

놀+는 → 노는[‘ㄹ’탈락, 어간이 바뀌었지만 규칙 활용]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대부분의 불규칙 용언에 해당[ㄱ, ㄷ, ㅂ, ㄹ, ㅍ]

- ‘ㄱ’ 불규칙 용언: ‘짓다’와 같은 용언, 활용될 때 ‘짓고, 짓어, 짓으니’와 같이 되어야 규칙에 맞는데 ‘짓고, 지어서, 지으니’와 같이 활용됨. 고정되어 있어야 할 어간의 ‘ㄱ’이 탈락함.

예) 잇+어 → 이어

짓+어 → 지어

- ‘ㄷ’ 불규칙 용언: ‘묻다(問), 듣다, 걷다’ 등.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뀜.

예) 걷+어 → 걸어

듣+어 → 들어

- ‘ㅂ’ 불규칙 용언: ‘놓다, 줍다, 뚫다’ 등. 어간의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뀜.

예) 뚫+아 → 도와

줍+어 → 주워

- ‘ㄹ’ 불규칙 용언: ‘부르다, 흐르다, 빠르다’ 등. ‘ㄹ’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로 바뀜.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는 ‘ㄹ’ 불규칙 용언과 구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

예) 흐르+어 → 흘러

이르+어 → 일러[‘말하다’의 뜻]

누르+어 → 눌러

- ‘ㅍ’ 불규칙 용언: ‘푸다’가 유일. ‘ㅍ’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예) 푸+어 → 퍼



② 어미가 바뀌는 경우

- '여' 불규칙 용언: '하다'가 유일. '하'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뀐.

예) 공부하+어 → 공부하여

['ㅎ-' 혹은 '하' 뒤에 반모음 'ㅣ'가 반복적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 '러' 불규칙 용언: '이르다, 치르다' 등. 어미 '-어'가 '-러'로 바뀐.

예) 이르+어 → 이르러('도착하다, 다다르다'의 의미)

푸르+어 → 푸르러

- '-오' 불규칙 용언: '달다'가 유일. 명령형 어미 '-어라'가 '-오'로 바뀐.

달다 :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동사)

예) 달+오 → 다오

③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불규칙 용언이 유일.

- 'ㅎ'불규칙 용언: '하얗다, 파랗다' 등.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의 형태도 변화함.

예) 파랗+아 → 파래

동그랗+아서 → 동그래서



전성 어미 vs 접미사

전성 어미 : 용언의 일부.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품사를 바꾸지 않음.

접미사 : 파생어를 만들면서 품사를 바꿀 수 있음.

명사형 전성어미 vs 명사 파생 접미사 : 수식어에 주목

명사형 전성어미 : -(으)ㅁ, -기

명사 파생 접미사 : -(으)ㅁ, -기, -이

관형어가 꾸미면 - 명사

부사어가 꾸미면 - 동사/형용사

꾸미는 말이 없으면 - 직접 꾸며보기

㉠ 많이 읽이 항상 미덥인 것이 아니다. [읽 : 동사]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슬픔 : 명사]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볶음 : 명사]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기쁨 : 형용사]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묶음 : 명사]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도움 : 동사]

그의 도움으로 인해 위기를 넘겼다. [도움 : 명사]

공손한 말하기 [말하기 : 명사]

공손하게 말하기 [말하기 : 동사]



부사형 전성어미 vs 부사 파생 접미사 : 형태에 주목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듯이

부사 파생 접미사 : -이, -히

예) 그는 청소를 깨끗이 했다. [깨끗이 : 부사]

그는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 형용사]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분명히 : 부사]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분명하게 : 형용사]



수식언

관형사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의 앞에서 그 말을 꾸며주는 단어

※ 관형사의 특징 : 활용 X 조사 결합 X

※ 관형사의 예시

옛, 헌 새,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여느, 어느, 온갖, 모든 등



부사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단어. 부사는 용언인 동사나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 관형사, 부사를 꾸며 주기도 한다.

※ 부사의 종류

- 성분 부사 : 문장 내에서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한다.

예) 갑자기, 매우, 이리, 오늘, 안, 못, 반짝반짝 등

- 문장 부사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접속 부사를 포함한다.

예) 물론, 정말, 설마, 부디, 그러나, 그래서, 즉 등

※ 구별하는 방법

[1] 문장 부사는 문장 안에서 자리 옮김이 자유로우나, 성분 부사는 자리를 옮길 수 없다. 수식하는 문장 성분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분명히 그는 다시 올 것이다.

→ 그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O]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 그는 잘 노래를 부른다. [X]

[2]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는 그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예) 확실히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 그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은 확실히다. [O]

[3] 편의상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심표(.)를 붙여 본다. 자연스러우면 문장 부사, 부자연스러우면 성분 부사
분명히, 그는 다시 올 것이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X]



관계언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보다 정밀한 뜻을 보태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이외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사의 종류

- ① 격 조사 :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 ② 보조사 :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고 말하는 이의 의도를 표현해주는 조사
- ③ 접속 조사 :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격 조사 목록

구분	역할	종류	예문
주격 조사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이/가, 께서, 에서	꽃이 피었다.
목적격 조사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을/를	나는 꽃을 좋아한다.
관형격 조사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의	꽃의 향기
부사격 조사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에, 에서, 에게, 한테, 더러, 보다, 만큼, 와/과, [으]로, 고/라고, 로써/로서, 처럼, 같이, 한테, 에게서, 한테서,	꽃에서 향기가 난다.
보격 조사	보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이/가	이것은 꽃이 아니다.
서술격 조사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이다	이것은 꽃이다.
호격 조사	독립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아/야 이여/이시여	신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보조사 목록

종류	의미	예	
성분 보조사	은/는	대조, 주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만	오직	나만 그것을 몰랐다.
	도	역시	철수도 시험에 합격했다.
	부터	시작	아침부터 찾아다녔다.
	마저	한계	너마저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까지	미침	겨우 여기까지 왔다.
	조차	첨가	너조차 그런 말을 하더니?
	마다	균일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하더라.
	이나/나	선택	아침잠이나 아침밥 중에 선택을 해.
	이라도/라도	선택 X	이거라도 갖고 가.
	이나/나	크거나 높음	벌써 반이나 끝났다.
	이나마/나마	불만	경험이나마 얻어 가자.
	이야(말로)/야(말로)	특수	국어야말로 진짜 어렵지.
	밖에	더없음	그런 사람은 너밖에 없어.
종결 보조사	마는, 그러, 그러	감탄	그가 갖다마는./ 갖너그러./ 갖구먼그러.
통용 보조사	요	상대 높임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격 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격 조사	보조사
문법적 자격 부여	의미(의도) 더해줌
생략 가능, 자주 이루어짐	생략 불가능(더한 뜻도 사라짐)

※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구별이 어려움.

방법 - 부사격 조사의 목록을 외워서 구별하기



접속 조사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와, 과, 하고, [이]랑 등이 있음.

나는 커피와(하고/랑) 음악을 좋아한다. → 접속 조사.

나는 동생과(하고/이랑) 싸웠다. → [부사]격 조사

※ 조사 '와/과'의 구별 - 접속 조사 vs. 부사격 조사

접속 조사와 '동반, 비교, 공동'의 의미를 가진 부사격 조사는 그 형태가 같아 구별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 '와/과/하고/[이]랑'을 기준으로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지 살핀다.

예) 나는 책과 낙서를 좋아한다. - '나는 책을 좋아한다.', '나는 낙서를 좋아한다.' → '과'는 접속 조사이다.

나는 친구와 함께 집에 갔다. - '나는 친구 집에 갔다.*', '나는 함께 집에 갔다.*' → 둘 다 불가능. '와'는 부사격 조사이다.

친구와 나는 함께 집에 갔다. - '친구는 함께 집에 갔다.*', '나는 함께 집에 갔다.*' → 둘 다 불가능. '와'는 부사격 조사이다.

- '와/과/하고/[이]랑'을 포함한 어절의 위치를 이동시켜 본다. 이동이 자유로우면 부사격 조사일 확률이 높고 이동이 불가능하면 접속 조사이다.

예) 나는 책과 낙서를 좋아한다. - 나는 낙서를 책과 좋아한다.* → '과'는 접속 조사(이동이 불가능)

나는 친구와 함께 집에 갔다. → 친구와 나는 함께 집에 갔다 - 이동이 가능 → '와'는 부사격 조사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감탄사 예시(외울 필요 X)

- 감정 감탄사: 일반적 감탄사

예) 어머니, 아이고, 아별사, 에그머니, 휴우, 흥, 아

- 의지 감탄사: 대답하는 말을 포함함.

예) 여보세요, 여봐, 여보, 응, 그래, 예, 아니요, 천만에

- 입버릇 감탄사: 특별한 의미 없는 입버릇

예) 에, 뭐, 어디, 있지



5. 단어의 형성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복합어

- 어근 + 접사 / 접사 + 어근 : 파생어

- 어근 + 어근 : 합성어

돌다 : 단일한 어근인 '돌-'으로 형성된 단어, 거기에 '-다(어미)'가 붙어서 기본형을 이룬 뿐. 단일어

헛돌다 : 접사(접두사) '헛-'과 어근 '돌-'이 결합하고 거기에 '-다(어미)'가 붙어서 기본형을 이룬 단어. 파생어

뒤돌다 : 어근 '뒤'와 어근 '돌-'이 결합하고 거기에 '-다(어미)'가 붙어서 기본형을 이룬 단어. 합성어

어근 vs 어간

- 단일어의 경우 : 어근과 어간 일치

예) 먹다 - 어간 : 먹- / 어근 : 먹-

- 파생어 : 어근과 어간 다름

예) 생각하다 - 어간 : 생각하- / 어근 : 생각

- 합성어 : 어근과 어간 다름

예) 굶주리다 - 어간 : 굶주리- / 어근 : 굶-, 주리-

어간 찾는 법 : 기본형에서 '-다' 빼기

어근 찾는 법 : '어미', '접사' 빼기



파생어

파생어 판단 기준 : 들로 나뉘었을 때 '접사'가 떨어져 나오는 단어

대표적 접사

접두사 : 헛-, 걸-, 들-, 풋- 등

예) 헛걸음, 헛고생, 걸치레, 걸멋, 들볶다, 들끓다, 풋사과, 풋사랑

접미사 : -꾸러기, -꾼, -하-, -되-, -롭-, '-이-, -하-, -리-, -기-, -우-, -구-, 추', -보, -당하- 등

예) 심술꾸러기, 잠꾸러기, 구경꾼, 노름꾼, 공부하다, 생각하다, 건강하다, 새롭다, 다채롭다, 먹이다, 들리다, 먹히다, 늦추다, 먹보, 잠보, 거절당하다, 무시당하다

주의해야 할 예시

새파랗다 : 파생어(새- : 매우의 의미)

새신랑 : 합성어(새 : 관형사)

날고기 : 파생어(날- : 익히지 않은)

날짐승 : 합성어(날 : 어간이자 어근)

한가운데 : 파생어(한- : 정확한)

한걱정 : 파생어(한- : 큰)

한입 : 합성어(한 : 관형사)

알밤 : 파생어(알- : 걸을 덮어 싹 것을 다 제거한)

알사탕 : 합성어(알 : 명사)



합성어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

- ㉠ 대등 합성어 : 수식 관계 X
- 예) 논밭, 여닫다, 오르내리다 등
- ㉡ 종속 합성어 : 수식 관계 O
- 예) 돌다리, 갈아입다, 뛰놀다 등
- ㉢ 융합 합성어 : 제3의 의미(관습적 의미인 경우가 많음)
- 예) 돌아가다(죽다의 의미일 때), 벼락부자, 개미허리, 입방아 등

형식적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

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대표 유형

- ㉠ 어간 + 체언 - 검버섯, 내리사랑, 덮밥, 두툽떡, 볶동, 싫증
- ㉡ 어간 + 어간 - 굶주리다, 날뛰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헐벗다
- ㉢ 부사가 체언 수식 - 거듭제공, 동동주, 따로국밥, 뼈국새, 척척박사, 부슬비, 출랑새(불완전 어근의 체언 수식 포함)
- ㉣ 한자어 중 어순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 독서, 등산, 급식

판단 방법

어간에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온전한 말(체언, 용언)이 있는지 보기

-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 없으면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전체 유형과 예시

유형	예
체언 + 체언	가래떡, 거짓말, 돌다리, 밤낮, 사이사이, 우리나라
관형사 + 체언	새색시, 아무것, 옛말, 온종일, 원일, 첫사랑, 한집안
용언의 명사형 + 체언	갈림길, 따개칼, 맺음말, 으뜸새, 올림머리, 접이문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검은색, 묵은땅, 미친개, 볼거리, 빈손, 지난봄, 탈것
용언의 연결형 + 용언	내려다보다, 돌아가다, 미워하다, 알아들다, 주고받다
체언 + 용언	남다르다, 마음먹다, 물먹다, 앞두다, 잠들다, 힘들다
부사 + 용언	가만있다, 그만두다, 못되다, 안되다, 잘되다, 잘살다
부사 + 부사	곧잘, 또다시, 오래오래, 자주자주, 잘못, 출렁출렁



비통사적 합성어 전체 유형과 예시

유형	예
용언의 어간 + 체언	검버섯, 내리사랑, 늦더위, 덮밥, 두툼떡, 볶동, 싫증
용언의 어간 + 용언	끓주리다, 날뛰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헐벗다
불규칙적 어근 + 체언	곱슬머리, 과쌌죄, 궁금증, 납작코, 물렁살, 민등산
부사 + 체언	거듭제공, 동동주, 따로국밥, 뼈꼭새, 척척박사
용언의 연결형 + 체언	섞어찌개, 살아생전
용언의 종결형 + 체언	먹자골목, 싸구려판
체언+용언의 어간 또는 불규칙적 어근	겉절이, 발버둥
체언+부사	하루빨리



6. 단어의 의미 관계

1) 유의 관계

예) ‘아버지’와 ‘아빠’
 ‘어머니’와 ‘엄마’
 ‘뜰’과 ‘겨를’
 ‘놓다’와 ‘두다’
 ‘잡다’와 ‘쥐다’ 등

개념 :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

특징

- 그 수가 상당히 많음.
-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표현해야 함.

놀 **뜰**이 없다.

놀 **겨를**이 없다. 의 경우 둘 다 가능

그러나,

문이 열린 **뜰**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문이 열린 **겨를**로 바람이 들어온다.(X)



택시에 우산을 [놓고/두고] 내렸다. - 둘 다 가능
개울에 다리를 [놓는다./*둔다.] - '놓는다'만 가능
징검다리를 헐지 않고 그대로 [*놓았다./두었다.] - '두었다'만 가능

[공/도둑/자리/날짜]을/를 잡다. - 모두 가능
[공/*도둑/*자리/*날짜]을/를 쥐다. - '공'만 가능

[*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표시임.]



2) 반의 관계

개념 :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

특징

-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됨.

‘남성’과 ‘여성’

→ **‘성별’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됨.**

‘입다’와 ‘벗다’

→ **‘입는지 벗는지’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옷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됨.**

‘가다’와 ‘오다’

→ **기준점에서의 ‘방향’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고 어딘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공통됨.**

- 단어의 경우 문맥에 따라 여러 개의 단어와 반의 관계를 형성함.

‘열다’

[입을] 열다 ↔ 다물다

[문을] 열다 ↔ 닫다

[뚜껑을] 열다 ↔ 덮다

[마개를] 열다 ↔ 막다



‘벗다’

[모자를] 벗다 ↔ 쓰다

[안경을] 벗다 ↔ 끼다 혹은 쓰다

[옷을] 벗다 ↔ 입다

[신발을] 벗다 ↔ 신다

[빛을] 벗다 ↔ 지다

‘서다’

[제자리에] 서다 ↔ 앉다

[달리던 기차가] 서다 ↔ 가다

[체면이] 서다 ↔ 꺾이다

[날이] 서다 ↔ 무디다



반의어의 종류

① 상보 반의어

A의 부정이 B가 되고 B의 부정이 A가 되는 반의어.

예) 남자-여자, 기혼-미혼, 죽다-살다

② 등급 반의어

두 단어 사이에 정도나 등급이 있어서 대립되는 반의어이다. 두 단어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으므로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표현이 가능하다. 즉 정도 부사 '더'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 길다-짧다, 덥다-춥다, 쉽다-어렵다

③ 방향(상관) 반의어

A의 부정이 반드시 B가 되지 않고, B의 부정이 반드시 A가 되지 않는 반의어이다.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예) 스승-제자, 사다-팔다, 위-아래, 시작-끝

※ 반의어의 종류 구분하는 방법

① 방향(상관) 반의어를 먼저 찾는다.

의미상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분석이 가능하다.

② 두 반의어의 '중간'을 생각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가능하다면 - 등급 반의어

불가능하다면 - 상보 반의어



3) 상하 관계

개념 :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상의어)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하의어)

예) 학용품 : 상의어

공책, 연필, 지우개, 물감 : 하의어

상의어인 '학용품'과 하의어인 '공책, 연필, 지우개, 물감'의 관계 : 상하 관계

동물 : 상의어

개, 고양이, 거북이, 원숭이 : 하의어

상의어인 '동물'과 하의어인 '개 고양이, 거북이, 원숭이'의 관계 : 상하 관계

※ 어떤 단어는 언제나 상의어, 어떤 단어는 언제나 하의어인 것은 아니다!

학용품(상의어) - 연필(하의어)

연필(상의어) - HB연필, 4B연필, B연필(하의어)

동물(상의어) - 개(하의어)

개(상의어) - 말티즈, 진돗개, 불독(하의어)



※ 상의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하의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나는 어제 새를 보았다. [그랬구나, 어떤 새일까? 너무나 일반적이고 막연하다]

나는 어제 비둘기를 보았다. [비둘기라는 새를 보았구나]

※ 상의어의 부정은 하의어의 부정을 포함한다. 반대로 하의어의 부정은 상의어의 부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는 어제 새를 보지 않았다. [새를 보지 않았기에 비둘기를 봤을 가능성 X]

나는 어제 비둘기를 보지 않았다. [비둘기를 보진 않았지만 다른 새를 봤을 가능성 O]

※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하의어가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다.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 공하의어는 같은 자격을 가진 하의어를 말한다.

‘개’와 ‘새’는 ‘동물’이라는 상의어의 공하의어이다.

‘개’와 ‘말티즈’는 ‘동물’이라는 상의어의 하의어이지만, 공하의어는 아니다.

‘말티즈’, ‘진돗개’, ‘불독’은 ‘개’라는 상의어의 공하의어이다.



4) 다의 관계(다의어), 동음이의 관계(동음이의어)

① 다의어의 경우

주다어 [주어(줘[줘:]), 주니]

[1] 「동사」

[1][...에/에게 ...을]

「1」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2」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3」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와 같이 하나의 표제어 안에 '1,2,3,4,...' 혹은 문체에 따라 '㉠,㉡,㉢,㉣,...'로 여러 뜻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한 단어의 1번 의미인 '중심적 의미'에서 여러 번 '확장'되어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의미들 사이를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다의 관계'에 해당하는 '다의어'인 것이다.

② 동음이의어의 경우

배이

「명사」

「1」『의학』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2」『동물』절족동물, 특히 곤충에서 머리와 가슴이 아닌 부분. 여러 마디로 되어 있으며 숨구멍, 항문 따위가 있다.

「3」긴 물건 가운데의 볼록한 부분.



「4」『의학』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드는 부분.

「5」『물리』정상 진동이나 정상파에서 진폭이 가장 큰 부분.

「6」〔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세는 단위.

배02

「명사」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모양과 쓰임에 따라 보트, 나룻배, 기선(汽船), 군함(軍艦),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따위로 나눈다. ≍선박02(船舶)「1」·선척02(船隻)·주선03(舟船).

배03

「명사」

배나무의 열매. ≍생리02(生梨)·이자08(梨子).

와 같이 다의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동일한 형태가 다른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단어 옆에 직접적으로 ‘01, 02, ...’ 혹은 문제에 따라 ‘1, 2, ...’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다. 각각의 형태를 보고 이 단어가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를 파악하고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의미를 ‘확장’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는 아예 다른데(이의), 소리만 같은(동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7. 문장 성분

문장 내에서 한 어절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품사와 달리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 가능

문장 성분의 체계

주성분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속 성분 :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 : 독립어

주의해야 할 성분

보어 : 되다/아니다 앞에 쓰여 '이/가'가 붙은 말, 혹은 붙을 수 있는 말

예) 나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 보어]

나는 바보는 아니다. [바보는 : 보어 - '는'은 보조사이기에 다시 '이/가'를 붙이는 것이 가능]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얼음으로 : 부사어 - '으로'는 부사격 조사이기에 '이/가'가 다시 붙는 것이 불가능]



관형어 vs 관형사 / 부사어 vs 부사(문장 성분 vs 품사)

문장 성분은 쉽고 넓게, 품사는 타이트하게

친구의 옷

새로 산 옷

새 옷

→ 밑줄 친 모든 것 : 관형어 / 그 중 '새'만 관형사

깨끗하게 해

깨끗이 해

어제 했듯이 해.

친구와 해.

→ 밑줄 친 모든 것 : 부사어 / 그 중 '깨끗이'만 부사

부사어와 부사 구별하는 법 : '-게, -도록, -듯이' 등으로 끝나면 부사가 아닌 용언 / '-이, -히' 등으로 끝나면 부사(전성어미 vs 접미사에도 내용 이)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

한 자리 서술어 : 주어만을 필요로 함.

두 자리 서술어 : 주어+목적어 / 주어+보어 / 주어+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함.

세 자리 서술어 : 주어+목적어+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함.

필수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주성분 전체)

부사어 중 일부(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vs 일반적 부사어

일반적 부사어 - 서술어가 필요로 하지 않음. 생략해도 무관.

- ㄱ. 나뭇잎이 **예쁘게** 물들었다. - 단순 수식
- ㄴ. 나는 그녀를 **영화관에서** 만났다. - 시·공간적 배경
- ㄷ. 아버지는 멧돼지를 **그물로** 잡았다. - 도구
- ㄹ. 집값이 무려 세 **배로** 뛰었다. - 구체적 수치
- ㅁ.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 동반
- ㅂ.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 시·공간적 배경
- ㅅ. 민석이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저녁을 먹었다. - 시·공간적 배경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가 기본적 의미 완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사어. 생략할 수 없음.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고 서술어를 최대한 사전에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음.

- 민석이가 **학교에** 간다.
- 나는 **친구에게** 돈을 줬다.
- 그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 중세사회가 **근대사회로** 변천했다.
- 눈이 **바로** 변했다.
- 실물이 **저 몽타주와** 같다.
- 피망은 **고추와** 다르다.
- 철수는 **영희와** 비슷하다.
- 남자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다.



8. 문장의 짜임

홀문장 vs 겹문장

문장 : 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문장 부호가 기준.

절 :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법 단위

홀문장 : 주어 - 서술어(절)이 한 개 이하로 존재하는 문장

겹문장 : 주어 - 서술어(절)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문장

구별하는 방법 :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에 밑줄 치기

밑줄의 개수가 1개 : 홀문장

밑줄의 개수가 2개 이상 : 겹문장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예외: 서술절을 안은 문장, 보조 용언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괄호를 치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함께 묶어 밑줄을 길게 치기

굴은 탕자와 비슷하다.

→ 밑줄의 개수가 하나이다. 홀문장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날다', '떨어지다'를 생각할 수 있다. 밑줄을 두 개 그었다. 겹문장이다.



세린이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 겹문장일 것 같지만, 밑줄 칠 것이 하나밖에 없다. 홑문장이다.

사람들이 동익이가 저지른 잘못을 알아냈다.

→ ‘저지르다’, ‘알아내다’를 생각할 수 있다. 밑줄을 두 개 그었다. 겹문장이다.

우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활짝 열었다.

→ ‘통하다’와 ‘열다’를 생각할 수 있다. 밑줄을 두 개 그었다. 겹문장이다.

토끼가 [앞발이 짧다.]

→ 밑줄을 하나밖에 긋지 못했다. 다만 서술절이므로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이 있을 것이다. 겹문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술절을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자.

가까스로 그 소란을 막아 내었다.

→ 밑줄을 두 개 쳤다. 그런데 구성이 심상치 않아 ‘막아’와 ‘내었다’ 사이에 ‘-서’를 넣어 봤더니, ‘막아서 내었다’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 같은 의미로 온전히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내었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홑문장이다. 밑줄은 한 개나 마찬가지로이니 ‘길~게’ 친다.



안은문장-안긴문장

안은문장 : 절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큰 것)

안긴문장 : 본래 문장이었으나 안은문장 안에 절로 안겨 있는 것.

명사절 분석 순서

① 문장 분석을 위한 밑줄을 친다.(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

② 밑줄이 ‘-(으)ㄴ, -기’로 끝나면 ‘명사절’이라고 적는다.

③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는지 적는다.

[격조사가 있으면 그걸 보고 판단, 없으면 복원해 보거나 문장 내 기능으로 판단하기]

예)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 명사절 ‘그 일을 하기’가 주어 기능을 함.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명사절 ‘그가 정당했음’이 목적어 기능을 수행함.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 명사절 ‘집에 가기’가 부사어 기능을 수행함.

내가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다. - 어떤 조사를 넣을 수 있을까. ‘를’을 넣을 수 있다. 목적어로 쓰였다.

어린이가 그 일을 **하기** 쉽지 않다. - 어떤 조사를 넣을 수 있을까. ‘가’를 넣을 수 있다. 주어로 쓰였다.



관형절 분석 순서

- ① 문장 분석을 위한 밑줄을 친다.(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
- ② 밑줄이 문장 내 체언을 꾸미고 있으면(명사절 제외) 관형절이라고 적는다.
체언을 꾸미는 느낌으로 찾는 게 싫다면 그 밑줄이 '-(으)ㄴ, -는, -(으)ㄹ, -던'으로 끝날 경우 관형절이라고 적는다.
- ③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찾고, 있으면 관계 관형절 / 없으면 동격 관형절로 분석한다.
- ④ 관계 관형절일 경우 '원래 ~였는데 생략'의 형태로 분석한다.

예) 빨간 장미가 한 송이 피었다.

- 원래 주어였는데 생략[장미가 빨강다]

내가 어제 본 영화가 참 재미있었다.

- 원래 목적어였는데 생략[영화를 보다]

네가 태어나던 2001년에 가뭄이 심했다.

- 원래 부사어였는데 생략[2001년에 태어나다]

부사절 분석 순서

- ① 문장 분석을 위한 밑줄을 친다.(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
- ② 밑줄이 '-이, -게, -도록, -아/-어, -아서/-어서, -듯이' 중에 하나로 끝나면 부사절이라고 적는다.
- ③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문장 내로 위치를 바뀐 있다면, 그것도 부사절로 분석한다.

예)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인용절 분석

‘-고(간접 인용)’, ‘-라고(직접 인용)’로 끝나면 인용절이라고 말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 온 느낌이라면 인용절이라고 쓴다.

서술절 분석

‘주어+주어+서술어’의 구조일 때 뒤에 위치하는 ‘주어+서술어’에 괄호를 치고 서술절이라고 말한다.

맨 끝에 서술어가 ‘되다/아니다’일 경우를 조심한다. 그 경우에는 서술절이 아니다. 그저 중간에 보어가 있는 것이다.

예) 민석이가 [배가 고프다].

배추가 [값이 비싸다].

그가 어른이 되었다. - 서술절 아님.

나는 바보가 아니다. - 서술절 아님.

각 절을 분석한 후에 절의 전체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

안은문장의 주어 전까지 밑줄을 확장하면 된다.

나는 용기가 매우 솟아오름을 느꼈다.

- ‘**솟아오름**’만 밑줄 치고 절 분석, **안은문장의 주어인 ‘나는’ 이전까지 밑줄 확장, ‘용기가 매우 솟아오름’이 안은문장(절)의 전체 형태**

나는 그가 나에게 준 선물을 잊지 못한다.

- ‘**준**’만 밑줄 치고 절 분석, **안은 문장의 주어인 ‘나는’ 이전까지 밑줄 확장, ‘그가 나에게 준’이 안은문장(절)의 전체 형태**

단, 이때는 관형절이기에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다’에서 생략된 ‘선물’까지 같이 고려해야 함.



이어진 문장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앞, 뒤로 나타나는 경우
안은문장의 모습과 형태가 다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vs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연결 어미를 기준으로 앞뒤 순서 바꿔 보기

[이때, 강조 등의 뉘앙스 차이는 무시]

의미가 바뀌면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바뀌지 않으면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열 :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대조 : 윤서는 집에 가지 **않았으나**, 민우는 갔다.

선택 :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원인	-[아]서, -(으)니	예)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주유소 오니, 기름 냄새가 난다.
조건	-(으)면	예) 배가 고프면 짜파게티를 먹어라.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의도	-(으)려고	예) 북한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는 집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한다.
상황	-는데	예) 그가 잠을 자는데 내가 깨울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양보	-(으)더라도	예) 폭우가 내릴지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출발한다. 저는 속을지언정 남을 속여서는 못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경우 - ‘시간적 선후 관계’

내일은 대전에 가고, 모레는 광주에 간다. - 나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가 오고, 사건이 벌어졌다. - 나열처럼 보이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나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미에 따라 시간적 선후 관계일 수도 있음)

비가 오고 땅이 젖었다. - 나열처럼 보이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예문 종합 분석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빌린’ 밑줄, 관형절, 목적어 생략(자전거를 빌리다)**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시작되기’ 밑줄, 명사절, 관형어로 쓰임(시작되기의 전에)**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치는’ 밑줄, 관형절, 주어 생략(영수가 치다),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괄호, 서술절**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 **‘사는’ 밑줄, 관형절, 주어 생략(사람들이 살다), ‘속였음’ 밑줄, 명사절, 주어로 쓰임(주격 조사 ‘이’)**
 -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 **‘다져진’ 밑줄, 관형절, 주어 생략(음식이 다져지다), ‘먹기’ 밑줄, 명사절, 부사어로 쓰임(부사격 조사 ‘에’)**
 -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 **‘없이’ 밑줄, 부사절(소리도 없이), ‘사라졌음’ 밑줄, 명사절, 목적어로 쓰임(목적격 조사 ‘을’)**
 -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 **‘달리는’ 밑줄, 관형절, 주어 생략(내가 달리다), ‘조심하라’ 밑줄, 인용절(간접 인용)**
-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의미 변화 X, ‘대조’에 해당,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민석이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 **‘민석이가 집을 나서려고 학교에 갔다.’, 의미 변화 O,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도)**



9. 문법 요소

높임 표현

1. 주체 높임법 :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것인데,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 편의상 알아두어도 문제 X

높임 실현 방법

㉠ 선어말 어미 '-시-'

㉡ 특수 어휘

㉢ 주격 조사 '께서'

예)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 선어말어미 vs 특수 어휘['-시-'의 분리 가능성 체크 필요]

계시다 : 특수 어휘

드시다 : 선어말어미 -시-(들+시+다)

가시다 : 선어말어미 -시-

주무시다 : 특수 어휘



※ 간접 높임

간접적인 주체 높임. 주체와 관련된 높여야 할 대상(주체의 신체, 소유물, 생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킴.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실에 계신다. [O] - 직접 높임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X] - 뜻이 맞지 않음.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O] - 간접 높임

선생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 - '선생님'과 관련된 '아드님'마저 높여 선생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김 선생님은 댁이 직장에서 많이 머시다. - '김 선생님'과 관련된 '댁'마저 높여 김 선생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박 선생님은 머리가 반백이시다. - '박 선생님'과 관련된 '머리'마저 높여 박 선생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2. 객체 높임법 :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임.

- 높임 실현 방법

㉠ 특수 어휘

㉡ 부사격 조사 '-께'

㉢ 예)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께 갔다.

*선어말어미가 없는 것이 특징



3. 상대 높임법 : 대화의 상대방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춤.

- 높임 실현 방법

- ㉠ 종결 어미
- ㉡ 보조사 '요'

말투 종류

격식체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예사 높임	하오체
	예사 낮춤	하게체
	아주 낮춤	해라체
비격식체	두루 높임	해요체
	두루 낮춤	해체



※ 구별 방법

낮춤말에 집중

낮춤말 중 '-요' 결합 가능 : 해체

낮춤말 중 '-요' 결합 불가능 : 해리체

(이미 '-요'가 붙어 있는 건 당연히 해요체)

-버니-, -습니- : 하십시오체(군대, 회사 등 말투)

단, '-버시다'(청유형) : 하오체

[-십시다 : 하십시오체]

예스러운 말투(뭉어서 기억 필요)

청자로 '그대'를 떠올릴 수 있으면 하오체

청자로 '자네'를 떠올릴 수 있으면 하게체

예스러운 말투 중 '감탄형'

'구려 - 구먼' 순서대로 암기

상대 높임법 종결 어미 순서대로(표에서의 순서) '구려-구먼', '하오-하게'



<예문>

민석아, 어제 말한 것 기억하고 있니?
[낮춤말, '-요' 붙이기 불가능. 해라체]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낮춤말, '-요' 붙이기 가능. 해체]

아이고, 잘 견뎌 주었구나.
[낮춤말, '-요' 붙이기 불가능. 해라체. 감탄형 중에 '-구려', '-구먼'도 아님.]

그래, 밥은 먹었어?
[낮춤말, '-요' 붙이기 가능. 해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버시다, 십시오' 하십시오체]

다같이 힘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버시다 : 하오체], [-요 : 해요체]

시킨 일은 다 끝냈나?
[주의해야 함. '-요' 붙이기가 가능하지만, '자네'를 떠올릴 수 있는 '하게체']

시킨 일은 다 끝냈어?
[이게 '-요'를 붙일 수 있는 '해체']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겠소.
['그대를 떠올릴 수 있는 '하오체']

다음에 식사나 한 끼 하십시오.
['-십시다'의 형태를 타이틀하게 확인 후 '하십시오체'라고 말하기]

아이고 참 재밌구려. 놀랬겠구먼.
[-구려 : 하오체], [-구먼 : 하게체]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기본적인 구별 방법 - '주어'에 집중하기>

주어가 당했으면(행위에 영향을 받으면) 피동, 아니면 사동

형이 동생을 울렸다. - 주어인 형은 울지 않았으니 사동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주어인 그는 돌지 않았으니 사동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주어인 마음은 놓아졌으므로 피동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우리가 남은 게 아니므로 사동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공책이 눌린 게 맞으므로 피동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주어인 '옷'이 찢어진 것이므로 피동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주어는 생략되어 있음. '나'라고 한다면, 그 주어는 숨지 않음. 사동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주어는 '눈', 피동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주어는 '나' 나는 날지 않음. 사동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 주어는 '그', 그는 맡지 않음. 사동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

- 1) 단형 피동(파생적 피동): '-이, -히, -리, -기, -되[다]'와 같은 피동 접사에 의한 피동문 구성
- 2) 장형 피동(통사적 피동): '-어지다' '-게 되다'(보조 용언 구성)에 의한 피동문 구성

※ '능동 → 피동' 일어나는 변화

사냥꾼이 사슴을 잡았다. →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 ②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 ③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뀐다.



※ 이중 피동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의 중복

판단 방법

‘-어지다’를 제외하고 피동인지 확인하기

㉠ 파괴되어지다 → ‘파괴되다’가 피동이 맞으니 이중 피동

붙여지다 → ‘붙이다’와 ‘붙어지다’

스티커를 ‘붙이다’ vs 스티커가 ‘붙어지다’ → ‘붙이다’는 사동, 그러므로 이중 피동이 아님.

밝혀지다 → 밝+히+어지다

방 안에 불을 밝히다 vs 방 안에 불이 밝히다 → ‘밝히다’는 사동, 그러므로 이중 피동이 아님.

※ 피동 표현의 특징

능동문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함.]

㉠ 날씨가 풀렸다. [누가 풀었지?]

그녀는 슬픔에 싸여 있다. [누가 그녀를 슬픔에 썼지?]

그가 감기에 걸렸다. [누가 감기를 걸었지?]



<사동을 나타내는 방법>

- 1) 단형 사동(파생적 사동): '-아-,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와 같은 사동 접사에 의한 사동문 구성
- 2) 장형 사동(통사적 사동): '-게 하다'(보조 용언)에 의한 사동문 구성

※ '주동 → 사동' 일어나는 변화

담이 높다 → 민석이가 담을 높인다.

민석이가 밥을 먹는다. → 어머니께서 민석이에게 밥을 먹인다.

- ① 없던 주어가 생긴다.
- ② 원래 있던 주어가 '목적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로 바뀐다.
- ③ ①,②의 변화를 종합해볼 때, 없던 주어가 생기고 있던 것도 여전히 필요한 성분들로 바뀌므로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난다.



<피동, 사동을 판단하는 방법>

①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거하고 '기본형'으로 바꾼다.

② '사동', '피동'에 관여하는 요소를 찾는다.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되, 시키, -게 하다, -어지다, -게 되다 중 아무거나]

③ '분리 가능성'을 체크한다.

④ 분리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100프로 사동 혹은 피동이므로 '주어가 당했는지' 체크한다.

[당하다 : 행위에 영향을 받다]

- 당했다면 피동

- 당하지 않았다면 사동



1) 그는 그 넓은 구멍이를 혼자 메우고 있었다.

- ① 메우다
- ② '우'
- ③ '메다'라는 말 존재
- ④ 그가 '멤'을 당한 건 아니니 사동

2)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손바닥이 쓸렸다.

- ① 쓸리다
- ② '리'
- ③ '쓸다'라는 말 존재
- ④ 주어는 손바닥이고 '쓸림'을 당했으니 피동

3) 의사는 환자를 응급실 침대에 눕게 하였다.

- ① 눕게 하다
- ② '-게 하다'
- ③ 무조건 피동

4) 엄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잔뜩 들러 보냈다.

- ① 들리다
- ② '리'
- ③ '들다'라는 말 존재
- ④ 엄마가 든 건 아니니 사동

5) 명수는 시험을 앞두고 자신감을 보였다.

- ① 보이다
- ② '이'
- ③ '보다'라는 말 존재
- ④ 명수가 봄을 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본 건 '자신감'이니 사동



6) 준호는 시험 시간에 당황한 나머지 쉬운 문제를 틀렸다.

- ① 틀리다
- ② '리'
- ③ '틀다'라는 말 존재 X
- ④ 사동도 피동도 아님.

7) 빨래를 헹별에 말렸다.

[엄청난 주의가 필요!! '르' 불규칙 용언을 생각!]

- ① 말리다
- ② '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가 결합
- ③ '마르다'라는 말 존재
- ④ 주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로 설정한다면 내가 마름을 당한 건 아니니 사동

8) 물건 가격을 내렸다.

- ① 내리다
- ② '리'
- ③ '내다'라는 말 존재 X
- ④ 사동도 피동도 아님.

9) 물건 가격을 올렸다.

[엄청난 주의가 필요!! '르' 불규칙 용언을 생각!]

- ① 올리다
- ② '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가 결합
- ③ '오르다'라는 말 존재
- ④ 주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로 설정한다면 내가 오름을 당한 건 아니니 사동



※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

단형 사동은 일반적으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모두를 의미할 수 있음.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만을 의미함.

[직접 사동 : 물리적 힘을 통해 사동을 실현한 경우 / 간접 사동 : 직접 사동을 제외한 사동]

예)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물리적으로 옷을 직접 입히는 행위와 말로써 옷을 입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말로써 옷을 입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로만 해석]

*예외 : 웃기다, 울리다, [책을] 읽히다

직접 사동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사동만 가능



시간 표현

판단 방법

1. 시제를 먼저 결론 짓기.

[과거-현재-미래]

2. 그 시제를 만든 요소를 찾기

- ㉠ 선어말어미
- ㉡ 시간 부사어
- ㉢ 관형사형 전성어미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어미					
선어말 어미	-았-/-었-/-였-, -더-, -았었-/-었었-/-였었-		-는, -(으)ㄴ-	∅	-겠-, -(으)리-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던	-는	-(으)ㄴ	-(으)ㄴ



동작상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동작이 기준.

- ① 완료상: '-어/아 버리다'등을 통해 동작의 완료를 나타냄.
 - ② 진행상: '-고 있다', '-아 가다'등을 통해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 민석이가 의자에 **앉고 있다**. [시제- 현재, 동작상- 진행]
민석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시제- 현재, 동작상- 완료]
민석이가 의자에 **앉고 있었다**. [시제- 과거, 동작상- 진행]
민석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제- 과거, 동작상- 완료]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절대 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함.

상대 시제 : 사건시를 기준으로 함.

※ 절대 시제, 상대 시제 구별 방법

절대 시제 : 끝을 보기

상대 시제 : 중간을 보기

㉠ 나는 그녀가 입는 옷을 비웃었다.

절대 시제 : 과거(비웃었다)

상대 시제 : 현재(입는)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절대 시제 : 현재(짓고 있다)

상대 시제 : 과거(탄) - 현재였으면 '타는'이었을 것.

그녀가 돌아왔음이 분명하다.

절대 시제 : 현재(분명하다)

상대 시제 : 과거(돌아왔음)



부정 표현

- 안 부정문 / 못 부정문

부정 부사 '안' 혹은 보조 용언 구성 '-지 않다'를 사용하면 안 부정문, 부정 부사 '못' 혹은 보조 용언 구성 '-지 못하다'를 사용하면 못 부정문이다.

- 짧은 부정문 / 긴 부정문

부정 부사(안, 못)을 사용하면 짧은 부정문

보조 용언 구성(-지 않다, -지 못하다)를 사용하면 긴 부정문

- 의지 부정 / 능력 부정 / 상태 부정(단순 부정)

의지 부정은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이 쓰인다.

능력 부정은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못' 부정문이 쓰인다.

상태 부정(단순 부정)은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이 쓰이나, 경우에 따라 '긴 못 부정문'을 쓰기도 한다.

예) 그가 밥을 먹지 않는다 - 긴 안 부정문, 의지 부정(혹은 단순 부정)

그가 밥을 먹지 못한다 - 긴 못 부정문, 능력 부정

그가 밥을 안 먹는다 - 짧은 안 부정문, 의지 부정(혹은 단순 부정)

그가 밥을 못 먹는다 - 짧은 못 부정문, 능력 부정

그의 모습이 전혀 멋지지 않다. - 긴 안 부정문 상태 부정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 긴 못 부정문, 상태 부정



-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 표현으로 인해 중의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 민석이는 어제 학교에서 그 책을 읽지 않았다.

- 책을 읽은 게 민석이가 아니다.
- 민석이가 책을 학교에서 읽었지만 그게 어제가 아니다.
- 민석이가 어제 그 책을 읽긴 했지만 학교에서 읽은 건 아니다.
- 민석이가 어제 학교에서 무언가 읽은 건 맞지만 '그 책'을 읽은 건 아니다.
- 민석이가 어제 학교에서 그 책을 가지고 무언가 했지만 읽은 건 아니다.

문장의 각 성분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10. 어문 규정

외래어 표기법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외래어 표기를 위해 별도의 기호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2항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2항]

- 영어의 'f'는 일관되게 'ㅍ'으로 적는다.

	0	X
file	파일	화일
fantasia	판타지아	환타지아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외래어 받침의 7종성 표기 원칙은 1음운은 1기호로 적는다는 표기 원칙에 어긋난다.

- ‘ㄷ’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발음을 최대한 표기에 반영하여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자음을 표기에 사용한다.

- ‘ㅅ’받침을 쓰는 이유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연음될 때의 발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0	X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썬
supermarket	슈퍼마켓	슈퍼마켈
hook	훅	훅



제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 t, k]나 [b, d, g] 등의 파열음은 국어에서 된소리나 된소리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나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0	X
Paris	파리	빠리
bus	버스	뵤스
cafe	카페	까페
self service	셀프 서비스	셀프 써비스
Mozart	모차르트	모짜르트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카메라', '라디오' 등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관용에 따른다.
- 뜻에 따라 외래어 표기 원칙을 준수하거나 관용 표기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관용 표기
camera	카메라
radio	라디오
banana	바나나

	외래어 표기 원칙	관용 표기
cut	컷 (인쇄물의 작은 사진)	커트 (머리를 자름)
type	타이프 (글자를 찍는 기계)	타입 (유형)



어말 무성 파열음 - [p], [t], [k]

- 짧은 모음의 다음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gap[gæp]갭, cat[kæt]캣, book[buk]북

- 긴 모음(모음 2개 혹은 장모음) 다음 [p], [t], [k]는 ‘-’를 붙여 적는다.

tape[teip] - 테이프(모음 2개), cake[keik] - 케이크(모음 2개), flute[flu:t] - 플루트(장모음)

유성 파열음 - [b], [d], [g]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를 붙여 적는다.

bulb[bʌlb]벌브, land[lænd]랜드, signal[signəl]시그널

[ʃ]의 표기(표기로는 ‘sh’)

-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절대 ‘쉬’를 적지 않는다.]

	0	X
flash[flæʃ]	플래시	플래쉬
shark[ʃɑ:k]	샤크	-
shoe[ʃu:]	슈	-
shrimp[ʃrɪmp]	슈림프	쉬림프
membership[ˈmembərʃɪp]	멤버십	멤버쉽
leadership[ˈliːdərʃɪp]	리더십	리더쉽



‘ㅈ’, ‘ㅊ’ 뒤에 오는 ‘ㅊ, ㅋ, ㅌ, ㅠ’의 표기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 ‘ㅈ’과 ‘ㅊ’ 뒤에는 이중 모음 ‘ㅊ, ㅋ, ㅌ, ㅠ’를 쓰지 않는다. 국어는 ‘ㅈ’과 ‘ㅊ’뒤에 오는 ‘ㅊ, ㅋ, ㅌ, ㅠ’와 ‘ㅊ, ㅋ, ㅌ, ㅠ’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ㅊ, ㅋ, ㅌ, ㅠ’와 ‘ㅊ, ㅋ, ㅌ, ㅠ’를 구별하지 않고 ‘ㅊ, ㅋ, ㅌ, ㅠ’ 한 가지로 적는 것이다.

	0	X
juice	주스	쥬스
jewelry	주얼리	쥬얼리
chocolate	초콜릿	쵸콜릿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죤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1)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2)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현지 한자음	한국 한자음
東京	도쿄	동경
京都	교토	경도
上海	상하이	상해
北京	베이징	북경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모음

	0	X
accent	악센트	액센트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서리
biscuit	비스킷	버스킷
body	보디	버디
buffet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버지너스
carol	캐럴	캐롤
Catholic	가톨릭	카톨릭
comedy	코미디	코메디
concept	콘셉트	컨셉
control	컨트롤	콘트롤
document	도큐먼트	타큐먼트
dynamic	다이내믹	타어나믹
Hollywood	할리우드	헐리우드
jurassic	쥐라기	쥬라카
message	메시지	메세지
nonsense	난센스	년센스
oxford	옥스퍼드	옥스포드
Singapore	싱가포르	싱카폴
symbol	심벌	심볼
symposium	심포지엄	심포지움
target	타겟	타겟
window	윈도	윈도우



로마자 표기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전사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표기대로 적는 ‘전자법’을 택하고 있다.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항]

-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로마자 이외에 사용하는 부호는 ‘-’가 유일하다. [‘되도록’을 쓰는 이유]



표기 일람

(1)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ㅙ	ㅚ	ㅜ	ㅠ	ㅞ	ㅟ	ㅛ	ㅜ	ㅜ	ㅟ	ㅛ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2) 자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ㅑ	ㅑ	ㅑ
g,k	kk	k	d,t	tt	t	b,p	pp	pp	p

ㅈ	ㅉ	ㅊ
j	jj	ch

ㅅ	ㅆ	ㅎ
s	ss	h

ㄴ	ㅁ	ㅇ	ㄹ
n	m	ng	r,l



- 'k, t, p' vs. 'g, d, b'

모음 앞의 'ㄱ, ㄷ, ㅂ'은 'g, d, b'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의 'ㄱ, ㄷ, ㅂ'은 'k, t, p'로 적는다.

고기[고기] gogi

두레박[두레박] durebak

그릇[그릇] geureut

- 유음 'ㄹ' - r, l

유음 'ㄹ'이 'r'과 'l' 두 가지에 대응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따라 구별되어 쓰인다. 즉 모음 앞에 있는 'ㄹ'은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 나타나는 'ㄹ'은 'l'로 적는다. 두 개의 'ㄹ', 즉 'ㄹㄹ'은 'll'로 쓴다.(r을 쓰지 않음)

구리[구리] guri

칠곡[칠곡] chilgok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로마자 이외의 기호 사용 허용)

중앙 Jung-ang(Jungang으로 쓰면 '준강'으로 혼동할 수 있음)

반구대 Ban-gudae(Bangudae로 쓰면 '방우대'로 혼동할 수 있음)

세운 Se-Un(Seun으로 쓰면 '스'으로 혼동할 수 있음)

해운대 Hae-undae(Haeundae로 쓰면 '하은대'로 혼동할 수 있음)



발음과 관련된 표기 원칙

0. 발음 기준으로, 음운의 변동이 실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표기 일람에 따라 적는다.

백마[뱅마] Baengma, 종로[종노] Jongno

해돋이[해도지] haedogi, 같이[가치] gachi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락] allyak, 조고[조코] joko

1. ‘ㄴ’은 ‘ㄷ’로 소리나더라도 ‘ni’로 적는다.

광희문[광히문] Gwanghuimun

2.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원래 된소리면 그대로 쓴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셋별 saetbyeol, 울산 Ulsan

낙지볶음 nakjibokkeum

3. 체언에서 일어난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은 반영하지 않는다.

체언이 아니면 다 반영한다.

목호[무코→목호] Mukho, 집현전[지편전→집현전] Jiphyeonjeon

조고[조코] joko, 잡히다[자피이다] japida



이름의 표기

(1)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박민석 Park Minseok [Park Min-seok]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2)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한복남의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할 경우 실제 이름이 '한봉남'인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3)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 SAMSUNG[지금 표기 기준으로 하면 '삼쑹'임]

HYUNDAI[지금 표기 기준으로 하면 '휴다이'임]

Park Minseok [지금 표기 기준으로 하면 '팍민석'임] 등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이다. 이전에 임의로 쓰던 표기들을 허용한다.



행정 구역 표기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 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g-dong

종로 2가 Jongno 2(i)-ga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예) 청주시 Cheongju



한글 맞춤법

제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 표음문자로서의 당연한 성격

어법에 맞도록 함 : 표의주의를 따른 모습, 읽는 사람을 배려

종이 : 소리대로 적은 것

달리다 : 소리대로 적은 것

꽃 : 어법에 맞게 적은 것

도둑이 : 어법에 맞게 적은 것

먹는 : 어법에 맞게 적은 것

(구별 방법 : 역지로 소리대로 써 보기

- 바뀌면 어법에 맞게 적은 것 / 안 바뀌면 소리대로 적은 것)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여기부터 내용은 쪽 읽고 이해하면 됨.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어차피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거라면 된소리를 적지 않겠다.

-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라면 된소리를 적겠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 않음 → 된소리로 적어야 그 발음이 가능하다.]

소쩍새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석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 않음 → 된소리로 적어야 그 발음이 가능하다.]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백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된소리되기에 해당함. → 된소리로 적지 않아도 된소리 발음이 가능하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 비슷한 음절의 기준 : 같은 된소리

똑똑하다, 짹짹하다, 싹싹하다, 쓱쓱 등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어차피 구개음화가 일어날 거라면 일어나기 전의 형태인 'ㄷ, ㅌ'을 사용해 표기하겠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맡이	마지	핥이다	핥치다
해돋이	해도지	걸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뚫자리 엇셈 웃어른 핫웃 무룻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보다는 표기상의 익숙함을 선택한 것이다.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ㄷ'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 본디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걸-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날-가리(남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돌-보다(←도두 보다)' 등

②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것

'반질-고리, 사흘-날, 숲-가락' 등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메, 폐, 헤'의 '케'는 '카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카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매(連袂)	연매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게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偈 : 설 게 / 揭 : 높이 들 게 / 憩 : 설 게

'카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카이'로 적는다.
'카이' 발음을 '허용'해주려면, 원칙대로 '카이'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본의(本義)	본이
무늬(紋)	무니
보늬	보니
오늬	오니
하늬바람	하니바람
닐리리	닐리리
녕큼	닝큼
띄어쓰기	띠어쓰기
씩어	씨어
티어	티어
희망(希望)	히망

※ 'ㄴ'의 발음

- ① 첫 음절에 오는 '의'는 무조건 [ㄴ]로 발음한다.
- ②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ㄷ]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③ 조사 '의'는 [세]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④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발음한다. (허용이 아니라 원칙이다.)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쫘(兩-) 년(年) [몇 년]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랑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레이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다만,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규율(規律)	규률
치열(齒列)	치렬	비율(比率)	비률
비열(卑劣)	비렬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분열(分裂)	분렬	선율(旋律)	선률
선열(先烈)	선렬	전율(戰慄)	전률
진열(陳列)	진렬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료,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리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다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수학여행(修學旅行)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은 결합 관계를 보여주어 의미 파악을 돕는 것이다.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건 당연히 손해이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종결형은 '-오', 연결형은 '-이요' 발음과 상관없이 각각의 형태를 기억하면 된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생산적 접사(많이 쓰는 접사)는 결합 관계를 보여주어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훤이 살림살이 쇠붙이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얹 만들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아 짓궂이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굽도리 다리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생산적이지 않은 모음으로 시작한 접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줄 이유가 없다.”

-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뎌뜨뎌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생산적 접사(많이 쓰는 접사)는 결합 관계를 보여주어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뭇뭇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꼬락서니 그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는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결합 관계를 보여 주면 의미 파악을 도울 수 있다.

ㄱ	ㄴ	ㄱ	ㄴ
갈죽이	갈जू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씩씩이	씩새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풀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베죽이	베जू기	흘죽이	흘जू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곧이 결합 관계를 보여주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소리대로 쓴다는 원칙을 지킨다.

-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깎두기
-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부스럭거리다와 무관함)
- 뼈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는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결합 관계를 보여 주면 의미 파악을 도울 수 있다.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덕이다	속더기다
그덕이다	그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쳐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는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결합 관계를 보여 주면 의미 파악을 도울 수 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긱이

오뎅이 일찍이 해죽이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이 vs 히 구별 방법

1) 발음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그 외의 것은 ‘히’로 적는다.

예) 극히, 작히, 엄격히, 솔직히, 고요히, 꼼꼼히
웬만하면 ‘-히’로 적으라는 것.

2)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 ‘이’로 적는다.

예) 깨끗이, 반듯이, 산뜻이, 의젓이, 지긋이, 버젓이

3)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는 ‘이’를 적는다.

예) 가벼이(가볍다), 가까이(가깝다), 새로이(새롭다), 외로이(외롭다), 즐거이(즐겁다), 기꺼이(기쁘다 :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다)
‘ㅂ’ 받침에 반응하되, ‘기쁘다’는 생소하므로 신경 쓸 것.

4) ‘-하다’가 붙을 수 없는 형용사 뒤에는 ‘이’를 적는다.

예)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비교] 도저히, 가만히, 무단히, 열심히 ⇨ 형용사 아님

도저 : ‘도저하다(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의 어근

가만 :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부사)

무단 :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음(명사)

열심 :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몰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명사)



5)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는 '이'를 적는다.

예) 간간이, 겹겹이, 땀땀이, 살살이, 툼툼이, 앞앞이

[비교] 섭섭히 ⇨ 첩어가 아닌 독립한 하나의 낱말임.

섭섭 : '섭섭하다[서운하고 아쉽다]'의 어근

6) 부사에 붙을 때에는 '이'를 쓴다. 이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곰곰이, 더욱이[더우기 X], 일찍이, 오뚝이, 빼죽이



띄어쓰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켤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개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 ‘조사’와 ‘의존 명사’의 형태가 같은 말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너**만큼** 했다. [조사] / 할 **만큼** 했다. [의존 명사]
- 너**뿐** 아니라 [조사] / 할 **뿐** 아니라 [의존 명사]
- 너는 너**대로** 해. [조사] / 하는 **대로** 내버려 둬. [의존 명사]

‘대로, 만큼, 뿐’의 경우 그 앞 말이 ‘체언’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앞말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즉,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려고 노력하면 띄어 쓴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어렵다면, ‘ㄴ, ㄹ’받침에 반응해도 좋다. ‘ㄴ, ㄹ’로 끝나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 ‘의존 명사’와 ‘어미의 일부’의 형태가 비슷한 말들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어미는 붙여 쓴다.”

그런데, 조사와 의존 명사의 경우처럼 간단하게 앞말의 형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

뭔가 꾸미는 느낌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의존 명사와 어미의 일부를 구별해 내는 유일한 기준은 ‘의미’이다.

- ‘지’ vs ‘-는지’

‘지’가 ‘경과한 시간’의 의미일 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나머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

-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의존 명사] /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어미]

‘데’ vs ‘-는데’

‘데’가 ‘장소’나 ‘일’을 의미할 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나머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

- 네가 가는 **데**가 어디니? [의존 명사] / 집에 **가는데** 철수가 왔다. [어미]
- 그 일을 하는 **데**에 세 시간이나 걸렸다. [의존 명사] / 네가 뭘(뭐+**는데**) 난리야? [어미]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시들	사과, 배, 굴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겸 : 의존 명사

내지 : 접속 부사

대 : 의존 명사

등 : 의존 명사

및 : 접속 부사

등등 : 의존 명사

등속 : 의존 명사

등지 : 의존 명사

각 말들을 띄어 써야 하는 이유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 보조 용언의 두 가지 형태

① 일반적 용언의 형태

일반적인 용언과 그 형태가 같아 본용언인지 보조 용언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보조 용언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② 의존명사 + ‘-하다, -싶다’ - ‘듯하다, 성싶다, 척하다’ 등

예) 일이 될 **법하다**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아는척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띄어쓰기’이다.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의존 명사가 더 이상 의존 명사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존 명사가 ‘-하다’, ‘-싶다’와 결합하여 보조 용언을 이룰 경우 그 의존 명사는 형태만 남아 있을 뿐, 의존 명사가 아니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므로 철저히 보조 용언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절대 붙여 쓰면 안 되는 경우

① 둘 사이에 '조사'가 있을 때

예) 책을 읽어도 보고

그의 말은 믿을 만은 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맞춤법에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준 것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다. 조사가 있을 때에도 붙여 쓴다면, 그것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붙은 것이 아니라, '조사'와 '보조 용언'을 붙여 쓴 기이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읽어 + 보고 ⇨ 맞춤법에서 허락했기에 가능

읽어도 + 보고 → '읽어'와 '도'는 '도'가 보조사이기에 결합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합은, '도+보고'를 의미함. 불가능

②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예) 네가 덩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보조 용언까지 붙여 써 버리면 어디까지가 본용언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반드시 띄어 쓴다.



준말의 표기

거북지 vs 편안치 등

기준은 딱 하나이다. '하' 앞에 있는 소리가 '울림소리인가 아닌가'.

① '하' 앞의 말이 모음이나 유성자음 'ㄴ, ㄹ, ㅁ, ㅇ'인 경우

→ 어간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된다.

㉠ 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간편하게(간편케), 흔하지(흔치), 흔하다(흔타), 편안하지(편안치), 정결하다(정결타), 다정하다(다정타), 다정하지(다정치) 등

② '하' 앞의 말이 무성자음 'ㄱ, ㅂ, ㅅ'인 경우

⇒ 어간의 '하'가 아주 줄어 없어진다.

㉡ 거북하지(거북지), 넉넉하지(넉넉지),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익숙하지(익숙지), 섭섭하지(섭섭지), 깨끗하지(깨끗지) 등



‘-로서’와 ‘-로써’

‘-로서’ : ~의 자격으로 / ‘-로써’ : ~을(를) 사용하여

예) 학생으로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연필로써 글씨를 쓴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꽃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역일	싫증	웃안	웃웃
젓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헛웃음
홀아비	홀몸	흄내	값없다	걸눴다
굽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받내다	벌놓다
빛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셋노랗다	시꺼멓다
씻누렇다	엇나가다	엎누르다	엇뜯다	뚫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접두사 ‘새-/시-’, ‘셋-/씻-’의 구별

- 새까맣다, 시꺼멓다
- 새빨강다, 시빨강다
- 새파랗다, 시퍼렇다
- 새하얗다, 시허옇다

처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시-’를 붙이되, 어간 첫 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로 적으며, 셋노랗다, 씻누렇다처럼, 울림소리 앞에는 ‘셋-/씻-’으로 적도록 하였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할아버지의 경우

① 어원은 분명하나,

- 한-아버지(‘큰’이란 뜻을 표시하는 ‘한’이 ‘아버지, 아범’에 결합한 형태)
- 한-아범

②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 한→할

③ 다만, 실질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 [할]아버지
- [할]아범

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골탕 며칠 아재비 오리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골병’은 사전에서 ‘속 깊이 든 병, 심한 타격을 받은 손해’,

‘골탕’은 ‘소의 등골이나 머릿골에 녹말을 묻히고 달걀을 씌워, 맑은장국이 끓을 때 넣어 익힌 국’

이라고 풀이되어 있어서, 그 어원적 형태가 ‘골(골수)-병(病), 골(골수)-탕(湯)’인지, ‘끓-병(病), 끓-탕(湯)’인지, 혹은 ‘골병(骨病), 골탕(骨湯)’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골탕’(속을 끓이는 걱정)의 앞부분은 ‘끓-’로 분석되지만, 뒷부분은 ‘탕(湯)’인지 ‘당’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며칠’은 ‘몇일’로 표기할 경우, ‘일’이 실질 형태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며딜] 혹은 [면닐]('ㄴ'이 첨가된 형태)로 발음되어야 한다. [며칠]이라는 발음을 고려한다면 ‘며칠’ 이외의 표기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이틀’은 ‘인흘’이나 ‘잇흘’로 적는다면, 사흘, 나흘 등과의 공통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인’, ‘잇’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게 된다.

‘아재비’는 그 옛 형태가 ‘아자비’였으므로, ‘아제(弟)-아비→[제아비]아제비→아자비→아재비’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어 ‘아재비’를 ‘얏애비’로 분석하여 적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리비’도 접두사 ‘올-’과 ‘아비’로 분석되지 않는다.

‘업신여기다’(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ㄴ’ 음이 첨가될 환경(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업:씬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부리나케’(급하고 빠르게)는 ‘화급(火急)하게’와 대응되는 말이므로 ‘불이 나게’ 바뀌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발음 형태 [부리나케]로 볼 때는 ‘불이 낱게’와 결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들은, 그 원형을 밝히려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붙임 3]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툭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이’는 본래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주격 조사와의 혼동을 피할 수 없고, 다른 단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니’로 적는다.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진고리(바느질-) 사흘날(사흘-) 삼진날(삼질-) 선달(설-)
손가락(술-) 이틀날(이틀-) 잔주름(잘-) 폰소(풀-)
선부르다(설-) 잔다듬다(잘-) 잔다랗다(잘-)

‘ㄹ’ 받침을 가진 단어(나 어간)가 다른 단어(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이 경우 역시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의 대상은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므로, 제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중 일부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ㅅ’과의 결합과 관련이 있다.

‘사흘’+‘ㅅ’+‘날’ > 사흘날 > 사훈날 > 사흘날

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본래의 형태가 ‘ㄹ’이라고 그것을 밝혀 적었다가는 발음이 전혀 설명되지 않으므로 ‘ㄷ’으로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땀싸리[대ㅂ싸리] 땀쌀[메ㅂ쌀] 뱀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햄쌀[해ㅂ쌀]

중세 국어에서 ㅂ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어두자음군과 관련, 그 ㅂ소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고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컷] 수탉[수ㅎ닭] 안팍[안ㅎ박]

암캐[암ㅎ개] 암컷[암ㅎ컷] 암탉[암ㅎ닭]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ㅎ’ 종성 체언의 소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11. 중세 국어 문법

1) 중세 국어의 음운

자음(초성자)

- 기본자

아음[어금닛소리] : ㄱ

설음[혓소리] : ㄴ

순음[입술소리] : ㅁ

치음[잇소리] : ㅅ

후음[목구멍소리] : ㅇ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상형) 기본자를 만든 후 여기에 획을 더해(가획) 자음들을 만들었다.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ㄸ	ㄹ
순음	ㅁ	ㅂ	ㅃ	
치음	ㅅ	ㅆ	ㅈ	ㅊ
후음	ㅇ	ㆁ	ㅇ	



연서와 병서

① 이어 쓰기(연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

‘으을 입술소리 밑에 쓰면 순경음이 된다.’

‘빙, 풍, 뽕, 뭉’

순경음 : 입술 가벼운 소리

[브순경음, 표순경음, 뽀순경음, 뭉순경음] - 브순경음과 뭉순경음만 사용된 예시를 확인할 수 있음.

② 나란히 쓰기(병서, 갈바쓰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쓰는 것

각자병서: ㄱ, ㄷ, ㅈ, ㅊ, ㅃ, ㅆ, ㅈ, ㅊ

합용병서

스계 합용병서 : ㅅ, ㅆ, ㅈ 등(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

브계 합용병서 : ㅃ, ㅆ, ㅈ, ㅊ 등(자음을 하나씩 모두 발음)

뽀계 합용병서 : ㅃ, ㅆ 등(브을 먼저 발음하고 맨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

브계, 뽀계 합용병서를 ‘어두자음군’이라고도 한다.

말머리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기 때문이다.



모음(중성자)

기본자

· [아래 아] : 하늘

ㅡ : 땅

ㅣ : 사람

천지인(天地人) 3재를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듦.

- ‘·’ [아래 아]의 발음은 [ㅅ] ‘아’와 ‘오’의 중간 발음

초출자

ㅏ, ㅑ, ㅓ, ㅕ

기본자들 끼리 서로 합쳐 ‘초출자’를 만듦.

초출자까지가 단모음에 해당함.

[참고]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을 이야기하고 이중모음은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을 의미한다.



재출자

ㅍ, ㅑ, ㅠ, ㅋ

초출자와 기본자 ‘·’를 서로 합쳐 ‘재출자’를 만들

여기까지가 중성 11자이다.

중성 11자를 서로 합쳐

ㄴ, ㅍ, ㄷ, ㅑ

·, ㄴ, ㄷ, ㅍ,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ㄴ, ㅑ, ㅑ, ㅑ

등을 만들어 쓸 수 있었다. 이는 문자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합성하여 쓴 것이므로 11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음조화

중세 국어 시기 중 15세기에는 모음조화가 철저히 지켜졌다.

모음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는 것을 말한다.

양성 모음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

음성 모음 : ㅡ, ㅜ, ㅠ, ㅓ, ㅕ, ㅗ, ㅛ, ㅜ, ㅠ 등

중성 모음 : ㅣ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모두와 결합 가능함.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음]



종성자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사용(종성부용초성)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초성과의 동일성을 이 시기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머리에 오는 자음과 끝소리로 오는 자음의 음성적 차이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는 음운적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 없이 표기하였다.

즉, 받침에도 초성과 같은 자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2) 중세국어의 표기 양상

- 음소적 표기법

소리 나는 대로 썼다. 오늘날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명사나 용언의 어간이 지나는 형태를 고정시키지 않고 교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곳(원형은 '곶')

업고(형태를 밝혀 적으면 '없고')

- 이어 적기(연철) (↔ 현대국어 분철)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에 쓰인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썼다. 실제 발음되는 음절을 표기에 반영하였다는 것으로, 음절적 표기법과 관계가 있다.

예) 기퍼, 기프니, 느저, 느즈니 바티라



- 종성 표기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개뿐이었으므로, 표기도 소리 나는 대로 8개의 자음을 사용하였다.

‘팔중성가족용’이라는 내용과 관련된다. 음소적 표기법과 관계가 있다.

받침 표기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가 사용되었다.



3) 중세 국어 문법

- 격 조사

주격 조사

현대 국어와 다르게 ‘가’가 존재하지 않음.

주격 조사 ‘이’가 선행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타남.

- 이 :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 ㅣ :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그 모음이 ‘이’나 ‘ㅣ’가 아닐 때
- ∅ :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인 ‘이’나 ‘ㅣ’로 끝날 때

예) 침이 기픈 믄 - 샘이 깊은 물은

- 체언 ‘침’이 자음으로 끝나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함.

부터 민석이더러 니르사터 - 부터가 민석이더러 이르시되

- 체언 ‘부터’가 ‘ㅈ’라는 모음으로 끝나서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함.

모땀 마터 굳고 척척하시며 - 몸에 있는 마디가 굳고 뻑뻑하시며(영성하지 않으시며)

- 체언 ‘마터’가 반모음 ‘ㅣ’로 끝나서 주격 조사 ‘∅’가 결합함.(형태가 실현되지 않음)

내해 드리 업도다 - 시내에 다리가 없구나

- 체언 ‘드리’가 모음 ‘ㅣ’로 끝나서 주격 조사 ‘∅’가 결합함.(형태가 실현되지 않음)



관형격 조사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음.

중세 국어 시기에는 선행 체언의 성격과 모음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경우, 총 3가지 형태가 실현되었다.

- 의, 의: 앞에 오는 체언이 평칭의 유정 체언일 때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의’, 음성 모음으로 끝나면 ‘의’가 결합함]
[평칭 :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 유정 체언 : 사람이나 동물]
- 시: 앞에 오는 체언이 무정체언이거나 존칭의 유정 체언일 때
[존칭 : 높여야 하는 대상, 무정 체언 : 식물이나 무생물]

예) 사름의 쁘들 거스디 아니호노니 -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데

- 체언 ‘사름’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양성 모음 ‘·’로 끝나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함.

공작의 모기 꺾시며 - 공작의 목과 같으시며

- 체언 ‘공작’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양성 모음 ‘ㅏ’로 끝나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함.

나라 말쑥미 둥귀에 달아 -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체언 ‘나라’가 무정 체언이어서 모음 종류와 상관없이 관형격 조사 ‘ㅏ’가 결합함.

세상에 부터 도리를 빅호스 빅리 - 세상에 부처의 도리를 배우리

- 체언 ‘부터’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어서 모음 종류와 상관없이 관형격 조사 ‘ㅏ’가 결합함.



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 : ‘을, 를’에 해당

현대 국어와 그 양상이 가장 유사한 격 조사에 해당.

단, ‘모음 조화’에 따른 선택이 있었음을 기억.

- 을, 을 :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 를, 를 :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ㄹ’만 올 수도 있음)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함.

예) 형님을 모를찌 발자취 바다 - 형님을 모르므로 발자취를 따라

- 체언 ‘형님’이 자음으로 끝났고 중성 모음 ‘ㅣ’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함.(‘을’이 결합해도 상관 X)
- 체언 ‘발자취’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를/를’이 줄어든 형태인 ‘ㄹ’이 결합함.

먼저 부텃 像을 빙그라 - 먼저 부처의 상을 만들어

- 체언 ‘상’이 자음으로 끝났고 양성 모음인 ‘ㅏ’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함.

나를 겨집 사막시니 - 나를 아내로 삼으시니

- 체언 ‘나’가 모음으로 끝났고 양성 모음인 ‘ㅏ’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함

智惠ㄹ 여러 보샤 - 지혜를 열어 보이시어

- 체언 ‘지혜’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를/를’이 줄어든 형태인 ‘ㄹ’이 결합함. 한자어에 결합했기에 자음 단독 형태로 실현됨.



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와의 1대1 대응을 통한 해석이 중요함.

다른 격 조사와 형태를 공유하기도 하므로 '절대' 외우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됨.

- 현대국어 '에' : '에/애/예'

음성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에'

양성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애'

'ㅣ'로 끝난 체언 뒤 : '예'

- 현대국어 '에게/께' : '의/익/스 + 그에/게/기/거기/손닥'

관형격 조사와 '그에/게/기/거기/손닥'의 임의 결합으로 나타남.

관형격 조사 중 '스'를 선택해 높임법을 실현하기도 했음.

오늘날 부사격 조사 '께'가 나타난 이유

- 현대국어 '로/으로' : '으로/으로/로'

- 현대국어 '와/과' : '와/과'



예) 섬 안해 자췌 제 - 섬 안에서 주무실 때에

- **부사격 조사 ‘애’의 쓰임 확인 가능(양성 모음과 결합)**

내 흐마 중생인 그에 즐거븐 거슬 보시하되 - 내가 이미 중생에게 즐거운 것을 하였으되

- **부사격 조사 ‘이+그에’의 쓰임 확인 가능(‘에게’의 기원)**

포스그엔 가리라 - 왕께는 가리라

- **부사격 조사 ‘스그에’의 쓰임 확인 가능**

安樂國이 어마났그 술보되 - 안락국이 어머님께 말씀드리되

- **부사격 조사 ‘스그’의 쓰임 확인 가능(‘께’의 기원)**

善宿 | 부텃그 술보되 - 선숙(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 **부사격 조사 ‘스그’의 쓰임 확인 가능(‘께’의 기원)**

나랏말쯔미 동국에 달아 -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부사격 조사 ‘에’의 쓰임 확인 가능**

문췌와로 서르 스궂디 아니홀췌 -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 **부사격 조사 ‘와로’의 쓰임 확인 가능**

짜히 열여뵈 相으로 뒸여 - 땅이 열여덟 모양으로 움직여

- **부사격 조사 ‘으로’의 쓰임 확인 가능**



호격 조사

- 현대국어 '아/야/이[시]여': '이여/여/아/야/하'

돌하 노피곰 도둑샤 -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 호격 조사 '하'의 쓰임 확인 가능

서술격 조사

현대 국어 '이다'에 해당

'이다'가 아닌 '이라'를 기본 형태로 생각하고 '이'의 변화 양상은 주격 조사의 변화 양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함.

- '이라' :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 '이라' :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이'나 '이'로 끝나지 않을 경우)
- '∅라' : 체언의 끝소리가 '이' 혹은 '이'일 때

예) 양네 쓰는 히 일후미라 -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 체언 '일후'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라'가 결합함.

牛頭는 쇠 머리라 -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 체언 '머리'가 '이'로 끝났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라'가 결합함.

生佛은 사라 겨신 부테시니라 -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시다

- 체언 '부터'가 모음인 '이'로 끝났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라'가 결합함.(부테라)



- 접속 조사

현대 국어 '와/과/에 해당

과 : 'ㄹ'을 제외한 자음 뒤

예) 法과, 모과

와 : 모음이나 'ㄹ' 뒤

예) 부터와, 佛와

현대 국어와 동일하게 '와/과'를 적용하되, 'ㄹ' 뒤에서는 '와'가 결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예) 사과와 배와 감과 **곶과** **파인애플와**가 많이 있다.[현대 국어 예시로 적용]

현대 국어와 달리 마지막 체언 이후에도 접속 조사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예)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와 다 ~~도~~하며 -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니와'의 경우 '니와'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하고, 이며, 이여' 등이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다.

예) 가시~~며~~ 子息~~이며~~ 좋~~이며~~ 집안사~~를~~ 다 眷屬이라 ~~하~~느니라



- 의문문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판정의문문 : 상대방에게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설명문의문문 :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 의문문과 관련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

판정의문문(의문사X) : 의문 보조사 '-가/아'와 '-아/-어'계열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인다.

설명문의문문(의문사O) : 의문 보조사 '-고/오'와 '-오'계열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인다.

예)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네 항것가 -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네 상전(주인)이냐?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 - 의문 보조사 ‘가’가 결합됨.

그 빠디 혼 가지아 아니아 - 그 뜻이 한가지냐 아니냐?

(‘한가지예요, 아니예요’의 대답을 요구) - 의문형 종결어미 ‘-아’가 결합됨.

니락사닥 이 엇던 光明고 - 이르시되, '이것이 어떤 광명이냐?'

(‘어떤’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 의문 보조사 ‘고’가 결합됨.

부테 누고 - 부처가 누구냐?

(‘누구’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 의문 보조사 ‘고’가 결합됨.

엇데 일후미 민석오 - 어찌하여 이름이 민석이냐?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 의문 보조사 ‘오’가 결합됨.



※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따른 의문문 형식 차이를 공부하는 방법

‘의문의 사고’라는 말을 외운다.

(의문사가 있으면 ‘고’나 ‘오’를 쓴다. 아니면 다른 형태를 쓴다.)

※ 의문문의 특이한 형태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으로 나타날 경우 판정, 설명에 관계없이 ‘-니다’ 형태로 의문문이 구성됨.

예외처럼 말하고 있지만,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일 경우, 최우선으로 생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 네 옛데 안다 - 네가 어찌 아느냐?

주어가 2인칭인 ‘네’이기 때문에 ‘안다’와 같은 형태가 사용됨. 판정/설명에 관계없이

네 믿는다 아니 흐는다 - 네가 믿느냐 아니 믿느냐

주어가 2인칭인 ‘네’이기 때문에 ‘흐는다’와 같은 형태가 사용됨. 판정/설명에 관계없이

네 옛던 헤무로 나를 황다 - 네가 어떤 생각으로 나를 면하게 할 것이냐?

주어가 2인칭인 ‘네’이기 때문에 ‘황다’와 같은 형태가 사용됨. 판정/설명에 관계없이

(‘-니다’에서 ‘-니’ 관형사형 전성어미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사용할 때에는 ‘-르ㅎ’과 같은 형태가 사용됨)

그랏 아버니미 잇느닛가 - 그대의 아버님이 있습니까?

‘그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주어는 ‘아버님이’이기 때문에 ‘-아/-어’ 제열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됨.



중세 국어 의문문 판단하는 방법 종합 -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

- ① 주어가 2인칭인지 확인한다. (네, 그대, 당신, 자네 등의 형태 확인)
- ② 2인칭인 경우 : 의문문의 끝이 '-나다'여야 한다. ('-르다'의 형태일지도 모름)
- ③ 2인칭이 아닌 경우 : '의문의 사고'(의문사가 있으면 '-고'나 '-오' / 아니면 '-가'나 '-아/-어')



- 높임법

중세 국어에서 높임법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저 어떤 종류의 높임법인지를 찾는 활동만을 수행하면 된다.

중세 국어 시기 모든 종류의 높임법은 모두 '선어말어미'로 실현되었다.

선어말어미를 찾고 높임법의 종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수행해야 한다.

주체 높임법 - 행동의 주체를 높인다.

- 찾아야 하는 선어말어미 : '-시-', '-샤-'

① '-시-' :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② '-샤-'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샤-' 뒤에 붙는 모음 어미는 탈락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十方諸國을 보그 히시니 - 십방제국을 보게 하시니

- 주체 높임법 선어말어미 '-시-'를 찾을 수 있다.

석 달 사랴시고 나아 가거시놀 - 석 달 사시고 나아 가시거늘

-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를 찾을 수 있다.(2개)

如來 太子스 時節에 나를 겨집 사막시니 - 여래께서 태자 시절에 나를 아내를 삼으셨으니

-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를 찾을 수 있다.

부텃 텅바깃썸 노팍샤 썸머리 꺄트실썸 - 부처의 정수리뼈가 높으셔서 썸머리 같으시므로

☞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샤-', '-시-'를 찾을 수 있다.

善慧(선혜) 精誠(정성)이 췌極(지극)히실썸 - 선혜 정성이 지극하시므로

☞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를 찾을 수 있다.



객체 높임법 -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 **찾아야 하는 선어말어미** : ‘-습-’, ‘-줍-’, ‘-습-’, ‘-습-’, ‘-줍-’, ‘-습-’

어간의 끝소리	형태	뒷 어미의 첫소리	예
ㄱ, 바, 사, ㅎ	-습-	자음	막습거늘(막다)
	-습-	모음	뚝습궤니(뚝다) → 뚝--습--으니
ㄷ, ㅈ, ㅊ	-줍-	자음	뜯줍게(뜯다)
	-줍-	모음	얻줍바(얻다) → 얻--줍--아
모음, ㄴ, ㄹ, ㄷ	-습-	자음	보습게(보다)
	-습-	모음	궤초궤바(궤추다) → 궤초--습--아

부텃 숭리와 經과 佛像과란 깊 西녀그 노습고 - 부처의 사리와 경전과 불상을 길 서쪽에 놓고

-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습-’을 찾을 수 있다.**

내 아래브터 부텃그 이런 마를 폰 뜯줍며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씀을 못 들었으며

-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줍-’을 찾을 수 있다.**

이 東山을 사아 如來 위궤스바 精舍를 이르스바지이다 - 이 동산을 사서 여래를 위하여 정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습-’을 찾을 수 있다.**

무량수불 보스궤 사르 폰 시방무량제불을 보스궤 디니 - 무량수불을 본 사람은 시방무량제불을 본 것이니

-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습-’을 찾을 수 있다.**



상대 높임법 -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춘다.

- 찾아야 하는 선어말어미 : ‘-이-’(현대 국어 ‘-습니-’, ‘-브니-’ 정도에 해당)

‘-이-’가 있으면 가장 높은 높임법의 등급인 ‘*하쇼셔체*’에 해당함.

높임법 등급별 실현 형태

‘*하쇼셔체*’ - 가장 높은 등급의 높임법

의문 : -니잇가/-니잇고

평서 : -이다

명령 : -쇼셔

‘*하야씨체*’ - 청자가 ‘그대’ 정도의 등급일 때의 높임법

의문 : -닛가/-닛고

평서 : -궁다

명령 : -씨

‘*하라체*’

나머지 낮춤말의 형태



‘호쇼씨체’

三十年(삼십년) 天子(천자) | 어시니 모진 궤를 일우리잇가 - 당나라 태종은 삼십년의 천자이시니 적들이 모진 궤를 이루겠습니까?

- **의문형 ‘-리잇가’를 확인할 수 있음(미래형)**

셔북 그벼궤 알찌 호북사 나사가샤 모진 도즈궤 물리시니이다. - 서울의 기별을 알므로 혼자서 나아가시어 모진 도적을 물리치셨습니다.

- **평서형 ‘-이다’를 확인할 수 있음.**

엇던 인연으로 아디 어려븐 법을 브즈러니 찬탄호시느니잇고 - 어떤 인연으로 알기 어려운 법을 부지런히 찬탄하십니까?

- **의문형 ‘-니잇고’를 확인할 수 있음.**

이 못 그셋 큰 산호 나모 아래 무두이다 - 이 연못가에 있는 큰 산호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 **평서형 ‘-이다’를 확인할 수 있음.**

구쳐 니러 절호시고 안즈쇼셔 호시고 - 구태여 일어나 절하히고 “앉으십시오” 하시고

- **명령형 ‘-쇼셔’를 확인할 수 있음.**

‘호야씨체’

엇데 부테라 호느닛가 그쁘들 닐어씨 - 어찌하여 부처라 하시오? 그 뜻을 말해주오.

- **명령형 ‘-씨’를 확인할 수 있음.**

내 그런 쁘들 몰라 호댕다 - 내가 그런 뜻을 몰랐소

- **평서형 ‘-다’를 확인할 수 있음.**

내 보아져 호느다 술박씨 - 내가 보고자 한다 말하오

- **명령형 ‘-씨’를 확인할 수 있음.**

그뫼 아버니미 잇느닛가 - 그대의 아버님이 있소?

- **의문형 ‘-닛가’를 확인할 수 있음.**



‘하라체’

너희 大衆[대중]이 卽장 보아 後[후]에 淸淨 업게 하라 - 너희 대중이 끝까지 보아 후에 淸淨이 없게 하라

- 명령형 ‘-라’를 확인할 수 있음.

소리썌 듣노라 - 소리썌 듣노라.

- 평서형 ‘-다’를 확인할 수 있음.(선어말어미 ‘-노-’ 뒤에서 ‘-라’로 바뀌어 실현됨)

쁘데 淸 마즌 이리 다 願 卽티 卽외더라 - 뜻에 맞지 않던 일이 다 원같이(원하던 대로) 되더라.

- 평서형 ‘-다’를 확인할 수 있음.(선어말어미 ‘-더-’ 뒤에서 ‘-라’로 바뀌어 실현됨)

종합 판단

㉠ 普光佛이 니르시니이다 - 보광불이 이르셨습니다

- 주체 높임법 ‘-시-’, 상대 높임법 ‘하쇼셔체’ ‘-이다’ 확인 가능

㉡ 世尊人 安否 묻썌고 니르사되 -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나서 이르시되

- 객체 높임법 ‘-썌-’, 주체 높임법 ‘-사-’ 확인 가능

㉢ 부터와 중과를 請하스보려 하넝다 - 부처와 중을 청하려 하오

- 객체 높임법 ‘-숄-’, 상대 높임법 ‘하야썌체’ ‘-는다’ 확인 가능

㉣ 三世엿 이를 아라실썌 부테시다 하넝다 - 삼세에 있는 일을 아시므로 부처이시다 하오

- 주체 높임법 ‘-시-’(2번), 상대 높임법 ‘하야썌체’ ‘-는다’ 확인 가능

㉤ 安否하스고 羅睺羅를 노하 보내야 상재 卽외에 하라 - 안부를 여쭙고 라후리를 놓아 보내어 상좌가 되게 하라

- 객체 높임법 ‘-습-’, 상대 높임법 ‘-하라체’ ‘-라’ 확인 가능



- 음운의 변화

① **ㅍ (비순경을 혹은 순경을 ㅍ) : 세조때 문헌부터 전면적으로 변화 시작**

현대 국어의 'ㅍ' 불규칙 용언의 양상과 관련됨.

- 'ㅍ' 뒤에 'ㅌ'나 'ㄷ'가 오는 경우 'ㅍ'이 반모음 'w'로 바뀜.

예) 더ㅍㅌ>더워

- 'ㅍ'이 '·'와 합쳐져 'ㅍ'로 바뀌거나, 'ㅍ'와 합쳐져 'ㅍ'로 바뀜.

예) 사오나ㅍ>사오나온, 치ㅍ니>치우니

- 'ㅍ' 뒤에 파생 접미사 '-이'가 오는 경우 'ㅍ'이 탈락하기도 함.

예) 고ㅍ>고이

② **ㅎ (여린 히읏) :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관형사형 'ㄹㅎ'표기에 사용되다 15세기에 소멸**

특정한 음가가 존재하지 않았음.

③ **ㅅ (반치음) : 중세국어 말기에 소멸, 16세기 말**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용언의 양상과 관련됨.

[ㅅ[z]]의 소멸, [z>∅]

예) 스ㅅ>스이

④ **ㅇ (옛이음) : 근대국어시기에 ㅇ 대신에 으을 사용, 17세기 사라짐**

음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문자만 'ㅇ'로 바뀜

예) 강>강



⑤ **방점 : 근대 국어 시기부터 완전히 소멸**

성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

⑥ · **(아래 아) : 16세기경 사라지기 시작하여 글자로만 사용하다가 1933년 글자로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음절 이하 : · → ㅡ [16세기경]

첫째 음절 : · → ㅏ [17, 18세기경]

그 외: ㅑ, ㅓ, ㅕ 등으로 변화한 경우도 존재

예) ㅑ다>ㅓ다

가득>가득

가을>가을

ㅑ슴>ㅓ슴 > ㅑ음 > 마음

ㅑ매>ㅓ매

ㅑ리다>ㅓ리다

아으>아우



- 시제

<중세 국어 시기>

동사의 기본형이 과거 시제를 나타냈던 것이 특징적

동사의 현재형은 오늘날과 달리 '-ㄴ-'가 조건 없이 결합하며 실현됨.

	동사	형용사
과거	∅, -더-	-더-
현재	-ㄴ-	∅
미래	-리-	-리-

네 아버 하마 주그니라[죽+으+니+다] - 너의 아버가 벌써 죽었느니라.

-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동사의 과거 실현(-니-는 시제를 나타내지 X)

주거미 날오되 내 하마 命終호라[명종+ㅎ+오+다] 주검이 이르되, “내가 이미 죽었다.”

-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동사의 과거 실현(-오-는 시제를 나타내지 X)

네 이제 쯤 문는다[문+ㄴ+다] - 내 이제 또 묻는다

- 선어말어미 '-ㄴ-'가 결합하여 동사의 현재 실현

이 大施主의 功德이 하녀 저그녀 - 이 대시주의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형용사의 현재 실현(오늘날과 동일)

내 願을 아니 從_ㅎ면 고줄 문 어드리라 - 내 소원을 좇지 않으면 꽃을 못 얻으리라

- 선어말어미 '-리-'가 결합하여 동사의 미래 실현(형용사도 동일하게 실현됨)



<근대 국어 시기>

	동사	형용사
과거	-았-/-었-, -더-	-더-
현재	-ㄴ-/-는-	∅
미래	-리-, -겠-	-리-, -겠-

오늘날엔 널리 쓰이는 ‘-았-/-었-’의 이전 형태인 ‘-았-/-엇-’이 동사의 과거 시제 표현에 사용되기 시작함.

이는 ‘남아 있다’, ‘죽어 있다’와 같은 형태로 일부 동사에서 쓰이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전체 동사로 그 쓰임이 확대된 것이다.

전체 동사까지도 쓰임이 겨우 확대된 것이기에 형용사의 과거 표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동사의 현재 표현이 ‘-ㄴ-’에서 ‘-ㄴ-/-는-’과 같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과 유사하게 동사 어간의 끝소리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른 선어말어미가 결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의 미래 시제에 쓰이는 ‘-겠-’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에 ‘-겠-’으로 형태가 바뀌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

<현대 국어 시기>

	동사	형용사
과거	-았-/-었-, -더-	-았-/-었-, -더-
현재	-ㄴ-/-는-	∅
미래	-겠-, -리-	-겠-, -리-



- 그 외 기타

‘ㅎ’ 종성 체언

끝소리에 분리할 수 없는 ‘ㅎ’이 결합되어 있는 체언이 있었다.

하늘히 - 하늘이

하늘과 - 하늘과

하늘훔 - 하늘을

수, 뚝, 바다, 썩(땡), 서울(京), 하늘(天), 헛나(一), 내(川) 등이 ‘ㅎ’ 종성 체언이었고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 ‘ㅎ’은 ‘ㄱ, ㄷ, ㅂ’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그 흔적을 보였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ㅎ’으로 그 흔적을 보였다.

다른 소리와 결합하지 않는 ‘휴지(休止)’의 상황이나 ‘ㅅ’과 결합하면 그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ㅎ’이 흔적을 보이는 건 ‘거센소리’를 만들 수 있을 때, 혹은 ‘ㅎ’을 보일 수 있을 때뿐이다.

돌히 - 돌이

-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나 ‘히’로 모습을 드러냄.

돌과 - 돌과

- ‘ㅎ’이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나 ‘과’로 모습을 드러냄.

돌석 - 돌 석[石]

- ‘ㅎ’이 ‘석’의 ‘ㅅ’과 만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탈락함.



‘ㅎ’ 종성 체언은 중세 국어 시기에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그 흔적을 보였지만, 현대 국어에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합성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에 자주 나온다.

현대 국어에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

살코기 - 살(ㅎ) + 고기

머리카락 - 머리(ㅎ) + 가락

수탉 - 수(ㅎ) + 닭

암탉지 - 암(ㅎ) + 돼지



어두자음군(‘ㅂ’계 합용 병서, ‘ㅃ’계 합용 병서)

어두 자음군이란, 어떤 단어의 첫소리 위치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이어 소리 나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는 단어의 첫소리에 최대 하나의 자음만 소리 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 위치에서 둘 이상의 소리가 날 수 있었다.

현대 국어에 남은 흔적으로 당시 어두자음군의 소리를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 지금의 음운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ㅂ’을 ‘어두자음군’과의 관련성을 통해 설명해낼 수 있다.

밭 - 쌀

당시 ‘브쌀’과 같은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좁쌀, 멍쌀, 햅쌀’ 등에 ‘ㅂ’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작르미니라 - 따름이니라

당시에도 ‘따’와 비슷한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ㄱ계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이 아닌, 단순 된소리 표기이다.

왜냐하면, ‘ㅅ’이 발음된 흔적을 지닌 예시가 없기 때문이다.

뵈 - 씨

당시 ‘브씨’와 같은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뵈씨’에 ‘ㅂ’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뵈 - 때

당시 ‘브때’와 같은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때, 접때’ 등에 ‘ㅂ’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ㄱ’ 곡용 체언 등(체언의 비자동적 교체)

중세 국어 시기에는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에 따라 체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를 ‘ㄱ곡용 체언’이라고 부른다. 이때, ‘곡용’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대 국어 ‘나무’ : 중세 국어 - ‘나모 or 남ㄱ’

[‘혹은’이라는 형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무엇이 원래 형태인지 모른다는 의미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 : ‘나모’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 : ‘남ㄱ’

나모도(나모+도), 나못(나모+ㅅ), 나모논(나모+는)

-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나모’로 실현됨.

남기(남ㄱ+ㅣ), 남근(남ㄱ+은), 남ㄱ로(남ㄱ+으로), 남꼴(남ㄱ+을) - 각 조사의 형태를 분리해내면 남는 건 ‘남ㄱ’과 같은 형태이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남ㄱ’로 실현됨.



비슷한 예시들이다.

현대 국어 '구멍' : 중세 국어 - '구무 or 굶ᄉᆞ'

구무도, 구똥, 구무늬

- 처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구무'로 실현됨.

굶기, 굶근, 굶ᄉᆞ로, 굶곶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굶ᄉᆞ'로 실현됨.

현대 국어 '풀무' : 중세 국어 - '불무 or 불ᄉᆞ'

불무도, 불똥, 불무늬

- 처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불무'로 실현됨.

불기, 불근, 불ᄉᆞ로, 불곶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불ᄉᆞ'로 실현됨.

현대 국어 '다른 것, 여느 것'을 의미하는 체언 : 중세 국어 - '녀느 or 녀ᄉᆞ'

녀느도, 녀똥, 녀느늬

- 처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녀느'로 실현됨.

녀ᄉᆞ기, 녀ᄉᆞ근, 녀ᄉᆞᄉᆞ로, 녀ᄉᆞ곶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 '녀ᄉᆞ'로 실현됨.



이것 외에도 ‘ㄱ’이 아닌 다른 음운과 연관된 체언들도 있었다.

현대 국어 ‘노루’ : 중세 국어 ‘노ᄃᆞᆫ or 놀으’

현대 국어 ‘나루’ : 중세 국어 ‘나ᄃᆞᆫ or 놀으’

현대 국어 ‘시루’ : 중세 국어 ‘시ᄃᆞᆫ or 실으’

현대 국어 ‘하루’ : 중세 국어 ‘하ᄃᆞᆫ or 흘르’

현대 국어 ‘아우’ : 중세 국어 ‘아ᄃᆞᆫ or 앓으’

양상은 다 같다. 자음이 오느냐, 모음에 오느냐에 따른 선택만 ‘문제 안’에서 잘 해주면 된다.